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1호

Tuesday, October 1, 2024 A

## “한미 우정의 상징, 국가사적지로 우뚝”

DC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국가사적지 동판 제막식 열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사적지(NRHP·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이 30일 거행됐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워싱턴DC 소재 대한제국공사관 건물 앞에서 진행된 이날 제막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와 찰스 샘스 국립공원청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조 대사는 인사말에서 “작년에 우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했지만, 사실 양국 외교관계는 142년 전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또한 “140년 전 외교관으로 일했던 선배들은 140년 뒤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가깝고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의 하나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오늘날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대한제국공사관 국가사적지 동판(왼쪽)과 30일 관계자들이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오른쪽)



한국과 미국의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자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건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샘스 국립공원청장은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은 한미관계의 오랜 역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목격해왔고, 방문객들이 그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그 가치를 설명했다. 샘스 청장은 “미국의

국가사적을 복원하고 보호한” 한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 DC정부 킴벌리 바세트 비서장은 “대한제국 공사관은 한국과 미국, 워싱턴 DC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바세트 장관은 “2006년부터 자매결연한 워싱턴 DC와 서울이 대한제국 공사관의 국가사적 등재로 더욱 돈독히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DC 로건서클에 위치한 대한제국공사관은 지난 11일 미 국가사적지로 공식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한국 역사의 중심이 됐던 장소가 미국에서 국가사적지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다.

박세용 기자

▶▶ 3면 ‘동판 제막식’으로 이어집니다

## ‘좌측차선’ 법률 위반 많다

상당수의 워싱턴 지역 운전자들이 ‘좌측차선 법률(Left Lane Law)’을 위반하고 있으나 당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자동차협회(AAA) 중부대서양지구가 6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49%가 왼쪽 차선에서 제한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운행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버지니아는 지난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좌측차선에서 제한속도 미만으로 서행 운전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100달러의 민사법칙금 티켓을 발부하도록 했으나, 실제 단속 실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도 좌측차선에서 제한속도보다 10마일 이상 더 낮은 속도로 서행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73%가 좌측차선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옥재 기자

## “허리”로 100명 이상 사망

역대급 폭풍으로 피해 파괴적  
지원 위한 추경예산 요청할 수도

약 600명이 행방불명 상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허리’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약 600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30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재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리케인 “역사적인(historic) 수준의 폭풍우”를 동반했고, 피해는 “정말로 파괴적”이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버지니아, 앨라배마주 등의 긴급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했으며,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구조와 복구 및 재건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자신이 이번 주중 피해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최고 시속 140마일의 4등급(전체 5등급 중 2번째로 높음) 허리

케인으로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물적 피해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9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무디스의 분석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내 재산 피해가 150억~2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일기예보 서비스 아쿠웨더는 전체 재산 피해와 경제적 타격이 950억~1천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 예상치를 내놓았다.



지난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에 허리케인 ‘허리’로 대형참나무가 쓰러져 있다. [로이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위

### Larry Hogan for U.S. Senate in 2024

한인 지지자들이 (Korean-Americans for Hogan) 래리 호건 주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보다 우리의 가치와 미국에 대한 공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었을 때,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근절에 앞장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했으며,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 공공 안전 강화, 국경 보호, 은퇴자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세금 감면과 경제 회복,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 보장 등 현재 미국과 메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것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가 아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8년동안 제가 주지사로서 해왔던 일이며, 상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11월 5일 (화)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과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락처 (240) 459-2128**

PAID FOR BY HOGAN FOR MARYLAND INC

# 검찰 “이재명, 재판중에도 사법 교란” 이 “검찰이 증거 짜깁기”

검찰 “수험생에 답안 주듯 위증교사” 이 대표 “검찰 친위 쿠데타” 날세워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대선출마 못해  
선거법 위반 이어 사법리스크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

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선 “수험생에게 미리 답안지 주는 것과 같이 100% 완벽한 위증교사를 했다. 재판받는 과정에도 사법 질서를 계속 교란했다”며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영역만 해당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14년 뒤인 2018년 5월 경지지사 후보 선거 방송 토론회에

선 “검사 사칭을 도왔다”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이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위증을 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혐의에 대해서는 비유를 들며 반박했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것에 ‘아니다’를 떼면 ‘나는 일본 사람’이라 말한 것이 된다”며 “(김씨의 전화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30분 동안 12번을 말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해석이

나온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도 재판에서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만 1년가량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결심을 마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준영·석경민·강보현 기자

## 검찰,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속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선거 두달 뒤 수천만원 돈거래 추적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들의 수사한 돈거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로 수사를 의뢰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김해에 있는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

씨의 집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추가로 명씨가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이 흘러간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이 돈을 건넨 시점

은 경남 창원외곽 지역구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전 의원의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지출에 관련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중 명씨는 최근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명씨는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받거나, 김 전 의원 지역구 이동(창원의거→김해)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창원=안대훈 기자

## 당정 지지율 동반 추락에 “이러다 다 죽는다”

측근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악화일로였던 ‘윤·한 갈등’이 여론 공멸 위기 속에 휴전 기류다. 당정 지지율 동반 추락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7일 조사해 30일 발표한 ARS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떨어진 25.8% 나타나 이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지지율

도 5.3%포인트 내린 29.9%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여당 지도부와 의 빈손 회동, 친한-친윤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7일 발표된 전화면접 방식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 국민의힘은 31%였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자 윤한 갈등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계파 갈등이 여론 공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의 ‘친한과 친윤 전쟁’이란 표현은) 과장”이라며 “전쟁이란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을 부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선 “(다른 패널의 추 원내대표 비판 발언에) 신 부총장이 주입재를 넣은 것”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광장히 열심히 한 대표를 띄워주고 보호하는 행동을 보여주신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이견이 표출됐다. 윤상현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완료가 안됐고, 선불리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며 “사과 한마디 하면 야당은 국감에서 ‘잘못을 시인했다’며 다음 단계로 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는 “(김 여사 리스크는) 사과라든가, 어떠한 매듭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다. 광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김종혁 최고위원)며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대표는 “(김 여사 사과에 대해) 저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2일(수) 73-61	5일(토) 79-57
3일(목) 76-62	6일(일) 74-60
4일(금) 80-62	7일(월) 74-58

10월 1일(화) 68~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점 \$660,000  
저렴 매물/보통/희귀/리모/모?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 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 “한인들의 정신적 힐링이 차세대 돕는 진정한 유산”

## 워싱턴 가정상담소 창립50주년 행사 성황

창립 50주년을 맞은 워싱턴 가정상담소(FCCGW, 이사장 조이 박, 소장 천신 테일러)가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열고 ‘힐링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50년’을 축하하고 ‘힐링을 향한 또다른 50년’을 다짐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 소재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이 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이민자들을 보듬는 역할에 집중하며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50년간 쉬지 않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앞으로는 미주 한인 역사를 이끌고 갈 2세대와 3세대 한인들은 물론, 인종과 재정적 능력을 초월해 워싱턴 지역 모든 가정들을 돕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 박 이사장 천신 테일러 소장

천신 테일러 소장은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역할을 설명하며 “미군 남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한인 여성들을 돕기 위해 뭉쳤던 26명의 한인 여성들의 뜻이 50년에 걸쳐 발전하고 더욱 전문화 돼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했다.

테일러 소장은 “한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유의 정서가 있으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한’을 이해해야만 한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풀어줄



타이슨스 소재 리츠칼튼 호텔에서 기금모금 만찬 행사가 열리고 있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존재 이유며 특화해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행사의 기조연설은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재활 및 복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El Pezo de Vide(생명의 샘)’ 제니스 유 공동대표가 맡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사 출신으로 선교사역을 위해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향했던 유 대표는 인신매매, 학대 등 각종 육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을 위해 3만5천여 차례 상담을 실시해 왔다.

유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잠재적 정신적 피

해자들”이라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은, 그 어느 민족보다 혹독히 체험했던 역사 속의 고통이 우리들의 DNA에 새겨져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을 통해 스스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이민으로 온갖 정신적 고통을 겪은 우리 세대 한인들이 이를 극복해야 차세대 한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민족적 자긍심과 긍지를 물려줄 수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런 역할에 가정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만찬 행사에서는 유미 호건 여사(전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캐서린 이든 메릴랜드 카운셀링 협회장 등이 축사를 전하며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미래를 위한 전진을 축하했다.

박세용 기자

## ▶ 1면 ‘동판 제막식’에서 이어집니다

이날 동판 제막식에는 대사관, 국외소재문화재단 등 정부 및 지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워싱턴 지역 한인 대표로 김태환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장, 이문형 워싱턴민주평통 간사, 최태은 미주한미동맹재단 회장, 강고은 옴니문화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박세용 기자



## 페어팩스 셰리프가 “수갑 채우고 폭행”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 요원이 체포한 용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카운티 경찰국은 조슈아 실버 요원이 지난 9월 11일 자신이 체포한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량 뒷좌석에 억류시킨 상태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밝혔다. 폭행은 용의자가 이미 셰리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동영상에는 범죄 용의자가 요원에

게 악담을 퍼붓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후 용의자는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실버 요원 측은 용의자가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용의자는 이미 ‘침뱉기 방지용 비닐(Spit Sock Hood)’을 머리에 두른 상태였다. 침뱉기 방지용 비닐은 경찰요원들이 용의자의 침에 맞아 각종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러 인권단체들이 용의자의 인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버 요원은 폭행을 마친 후 용의자를 다시 차량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이 장면 직후 다른 셰리프 요원에게 인계됐다. 경찰국은 폭행 현장이 담긴 동영상 분석해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셰리프국은 사건 발생 직후 실버 요원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가 이후 경찰에 입건되자 해고했다.

당국에서는 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던 용의자의 신상과 범죄 혐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욱제 기자

## ‘VIP 성매매’ 한인업자 유죄 인정

최대 25년형·벌금 50만불 예상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고급 주택가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성매매 업자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한 이(42·케임브리지·여)씨가 매춘 알선, 강요 및 자금 세탁 등에 대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20~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선고일은 오는 12월 20일이다.

연방검찰 린지 웨인스타인 검사는 “이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

다”며 “이씨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준명(30·데탕)씨의 유죄 인정 심리는 오는 10월 30일에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에서 진행된다. 반면, 다른 공범인 남가주 출신 제임스 이(68·토런스)씨는 유죄 인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연방 검찰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지검장 대행은 매춘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고객 명단이 공개된다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하급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자 현재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장열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질문은 선택 - 옴니에게

- 사원채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초대합니다”

## 워싱턴지역 여교역자회 창립예배 & 세미나

Founding Worship Service & Seminar of the Clergywomen Association in Washington DC & Virginia

**강사:** 임은미 (유니스) 선교사 목사  
**제목:** “각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1-5

**일시** 10월 6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워싱턴 제일 순복음 교회  
6401 Lincolnia Rd., Alexandria, VA 22312

강사 프로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30년  
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사람 그대입니까?> 외 10권  
아프리카 SAM(Students Arise Mov.) 대표 / KOSTA 강사  
(전) 한세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  
(전) Nairobi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목회상담학 교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but speaking truth in love, we may grow up in all thing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Eph 4:15)

**세미나**

**대상** 여성 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일시** 2024년 10월 7일 (월) 10am - 12pm  
**장소**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4300 Evergreen Ln., Annandale, VA 22003

**후원**  
단체: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 워싱턴지역 교역자회,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워싱턴신학교(WTS)  
교회: 워싱턴비전교회(김찬영 목사), 생활선교회(이경희 목사), 링크버그한인교회(이택래 목사), 워싱턴리빙스톤교회(이향숙 목사), 헤세드유나이트선교회(박지나 목사), 버지니아제일장로교회(김봉묘 목사), 워싱턴 물뎀동산교회(이영희 목사)

**워싱턴지역 여교역자회** | 회장 박희숙 목사, 부회장 이향숙 목사, 총무 김봉묘 목사, 서기 이경희 목사, 회계 박지나 목사, 중보기도 리더 이영희 목사

# “치솟는 학비”... 학자금 계좌에 가족·친지 기여 늘어나

〈529 플랜〉

2분기 저축액 5.4%가 선물  
비싼 학비에 상호부조 유행  
“도움 요청” 45~65%로 늘어

529 플랜에 가족과 친지가 기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CNBC는 최근 부모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가 선물로 529 플랜에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정부 운영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 연합체인 대학저축플랜네트워크(CSPN)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529 플랜을 통한 저축액은 69억 40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 중 5.4%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모가 아닌 가족이

나 친지의 선물에 의한 것이었다.

529 플랜 기여를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프트오브칼리지의 웨인 웨버 CEO는 “최근 몇 년간 529 플랜에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529 플랜을 통한 저축 총액도 늘어났다. 올해 6월 기준 529 저축계좌 총액은 508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의 4505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2.8% 오른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상승세가 10% 못 미치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피델리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밝힌 부모의 비율은 58%였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78%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학자금을 위한 저축이 늘어나고 서로 자녀의 학자금을 선물 받는 문화가 널리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학비’가 꼽혔다.

대학저축재단(CSF)의 크리스 맥기 회장은 “많은 사람이 자녀의 학자금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단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

르면 자녀를 둔 부모 응답자 중 2023년엔 45%가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24년엔 이 비율이 65%까지 늘었다. 자녀 학자금 저축을 서로 돕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529 플랜의 정식명칭은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점은 계좌 운용 시 생기는 투자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축계좌의 자금을 자녀 대학 교육에 사용하면 인출 시에도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점으로는 제한된 사용처가 꼽힌다. 529 플랜에서 돈을 인출한 뒤 대학 학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유예됐던 세금은 물론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대학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관련 비용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거주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오로지 대학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529 저축계좌의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거주에는 혜택이 없다.

다만 캘키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529 플랜에 납입금을 매칭해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

## 회사채 발행 자금 조달 기업 증가

빅컷 후 10개사 총 122억불  
신용도 낮은 기업들도 가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이후 기업 다수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무선 통신사 티모바일 등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10곳이 122억 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정크본드)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0개 기업이 이날 회사채를 발행했다.

온라인 가구 소매업체 웨이페어는 정크본드 시장을 통해 기존 대출 7억 달러를 차환하려 하고, 담배 필터 제조사 세르디아도 8억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앞서 연준은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상단을 기존 5.5%에서 5.0%로 낮춘 바 있다.

이후 회사채 금리 하락 덕분에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간의 수익률

차이)는 더욱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향후 경제지표 발표나 대선에 따라 변동성이 생기기 전 자금 확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아델라 투자운용의 데이비드 시프먼은 “연준의 금리 결정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투자자들도 여전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동성 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방향 전환은 주택 시장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30년 물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1년 전 8%에 육박하다가 6%를 향해 가고 있다.

다만 로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부터 금융시장에서 모기지와 회사채 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조정이 시작됐다면 전방적인 시장 분위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 유승준 또 한국행 좌절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여 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또다시 한국행을 거부당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이 지난 2월경 유씨가 신청한 비자와 관련해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다시 입국을 막은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 거부 통지서에서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



후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씨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두 번째로 거부 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유씨는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장열 기자**

## 앤지 강, 훌루·디즈니+·ESPN+ 총괄변호사

강석희 GSA 지역국장의 딸



NBC 등과의 계약 과정을 지휘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2021년에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급자인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법조인으로, LA 타임스가 선정한 디지털 미디어 부문 우수 법조인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한인사회 첫 선출직 시장(어바인)을 지낸 강석희(71) 연방 조달청(GSA) 지역국장의 딸이다. **최인성 기자**

월드 디즈니 자회사인 훌루(Hulu)의 대표 변호사로 일해온 앤지 강(사진) 변호사가 훌루와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의 전 세계 총괄 대표 변호사로 승진했다. 강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08년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인 ‘라삼 앤 와킨스’에서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후 2011년부터 훌루에서 일해왔다. 훌루가 2019년 월드 디즈니에 합병되기 전까지 비즈니스 및 법률담당으로 훌루의 지분을 가진 폭스,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SK회장 차녀, 기소된 중국계 회사 자금 이전 관여

던글로벌, 각성제 약물 무단처방 중국으로 도주 시도 CEO 체포 최민정씨, 재무책임자로 근무 WSJ "25만불 홍콩 이체 담당" 기소 명단에 최씨 이름은 없어



루시아 허(가운데, 초록색 재킷)와 최민정(맨 오른쪽) 등 던글로벌 관계자들이 2022년 당시 한 회의 참석 후 촬영을 하고 있다. [던글로벌 웹사이트]

SK그룹의 차녀 최민정씨가 최근 각성제로 분류되는 약물의 처방전을 무단으로 남발하다 경영진이 기소된 중국계 의료 회사에서 자금 이전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지역 원격의료 회사 '던 글로벌(Done Global)'의 경영진들이 소셜 미디어에 과장 광고를 게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인 애더럴(Adderall)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더럴은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지만, 각성 효과가 있어 제대로 된 처방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심장마비 및 약물 의존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현재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오남용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팬데믹 이후 원격 의료 활성화 과정에서 4000만개 이상의 애더럴을 처방하고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인 중국계 루시아 허(Ruthia He)가 기소 직전 중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홍콩으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최씨가 담당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이 회사에서 재

무책임자로 근무했고 허 CEO와는 베이징 대학 동문이다. 허 CEO는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홍콩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 표를 구매, 미국에 예치됐던 돈을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책임자인 최씨는 25만 달러를 홍콩으로 이체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WSJ은 "최민정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최태원이고 할아버지는 대통령이었

다"고 실명을 적시해 보도했다. 본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최씨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2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허 CEO는 지난 6월 수사당국에 체포돼 3개월 동안 수감된 뒤 풀려났지만,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자택에 연금돼 있는 상태다.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본지 질문에, 기사를 작성한 WSJ 롤프 윈클러 기자

는 "현재까지 최씨는 기소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최씨가 재무책임자여서 무단 처방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다.

WSJ은 "미국 본사의 직원들은 다수 퇴사했지만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던 글로벌의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여전히 미국인들이 각성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던 글로벌의 환자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6만7000명이었다. 2022년 11월(약 5만6000명)에 비하면 약 2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켈리 고든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으로 처방전을 갱신하고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며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처방하든지, 회사에서 나가든지 하라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4년 한국 해군 사관후보생에 지원해 소위로 임관한 뒤 합정 병과 장교로 2015년 청해부대에서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 백발이라 더 빛난다... 팔순에 미스유니버스 출전

CNN, 시니어 모델 최순화씨 조명 환자 권유에 간병인서 모델로 데뷔

시니어 모델 최순화(81)씨가 '역대 최고령'으로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에 참가해 화제다.

CNN은 28일 서울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한 최씨의 사연을 조명했다. 미스 유니버스는 수십년간 출전자 연령을 18~28세로 제한하고, 임신 부나 기혼자 또는 결혼한 적이 있던 사람의 출전을 금지해왔다.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고, 이에 최씨도 출전이 가능해졌다.

최씨는 30일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본선 대회에 도전했다. 본선 우승자는 한국을 대표해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출전자로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확정된 출전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몰타 출신의 베아트리스 은조야(40)다.

최씨는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며 "나이가 들면 체중이 늘어나는데, 나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미 한국 패션계에서 유명하다.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은퇴를 포기하고 50대까지 병원 간병인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환자가 모델 제의를 했다고 한다. 최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래전 모델이 꿈이었기 때문에 해보아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72세 나이에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최씨는 모델 학원에 다니며 수업을 듣고, 근무 시간 틈틈이 병원 복도에서 워킹 연습도 했다. 이후 2017년 모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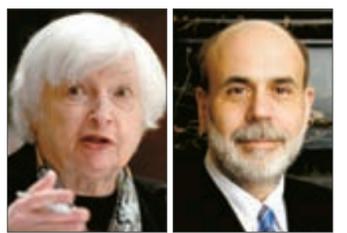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본선에 진출한 81세 시니어 모델 최순화씨. [사진 최순화 인스타그램]

이전사와 계약을 맺고, 이듬해 서울 패션위크에 데뷔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4세였다. 이후에도 최씨는 패션 잡지와 맥주 광고 등에 등장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최씨는 "제 아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즐기라고 말했다"며 "손주들도 '할머니 대단해!'라고 말하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예슬 기자

## "경제, 연착륙 경로에... 경기침체 모면할 것"

엘런 "고용·물가 동시 관리 가능"



제닛 엘런, 벤 버냉키

제닛 엘런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26일 각각의 발언에서 경제가 연착륙의 경로에 있어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엘런 장관은 이날 방영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길이 있으며,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지금 데이터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고 급여는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

키는 마지막 단계가 주택 가격 하락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하락으로 주거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엘런 장관은 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근거로 기준금리가 지난주 '빅컷'(0.5% 포인트 인하하면서 4.75~5.0%)에 이어 중립(금리) 수준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포트뉴스, 리치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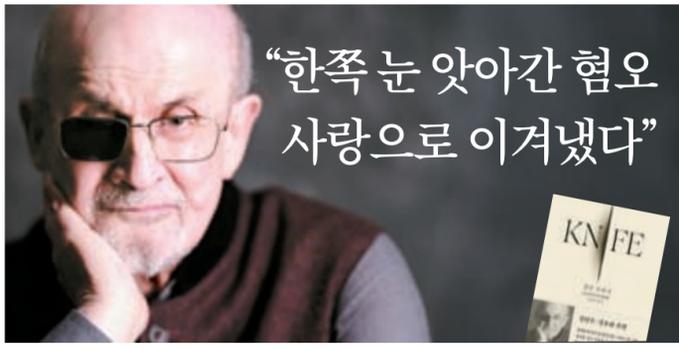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7-10/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나이프』 한국판 펴낸 살만 루슈디 2년전 무슬림 청년에 피습 후 생활 범인과 가상대화 담은 회고록 집필 "이 책은 폭력에 대한 예술의 응답"

최근 몇 년 간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꼽혀온 인도 출신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77)가 산문집 『나이프』로 돌아왔다. 2022년 미국 뉴욕주 강연장에서 극단주의 무슬림 청년에게 테러를 당하고 나서 쓴 회고록이다. 소설 『악마의 시』(1988)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에 시달려온 루슈디에게 처음 발생한 피습 사건이었다. 흥기로 온몸을 15번 찢린 루슈디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눈을 잃었다. 책에는 '살인 미수 후의 명상'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나이프』 한국판 출간을 앞두고 서면으로 루슈디와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나이프』는 『악마의 시』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두 책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기 바라나. "나를 공격한 자가 읽지도 않은 책, 『악마의 시』가 나는 자랑스럽다. 독자들이 그 책을 위협의 그림자 속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으로 즐겨 주기를 바란다. 『나이프』는 내게 일어난 '그 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자, 폭력에 대한 예술의 응답이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일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 수많은 작가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바쳐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 우파, 좌파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작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혐오의 대적점에 서서 혐오를 이기는 사랑. 아내 알라이자와 가족들, 동료 작가들과 독자들이 보내준 지지를 믿고 회복할 수 있었다. 『나이프』는 사랑의 힘에 관한 책이다." -『나이프』 6장에는 테러범과 상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 등장한다. 그가 이 책을 읽

기를 바라나. "그가 이 책을 읽을 것 같지 않다. 6장을 쓴 이유는 그에 관해 쓰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습 경험을 다룬 책이지만 시종일관 진지하지는 않다. 고통스러운 재할 과정도 위트 있게 다뤘다. "유머가 없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책은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 책은 2022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진술서가 아니다. 문학 작품으로 즐길 수 있는 풍부하고 다층적인 글을 쓰고 싶었다." -테러범은 『악마의 시』를 단 두 페이지 읽었다고 진술했다. 당신을 혐오하면서도 당신에 대해 알고 싶었다.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무지해졌다. 이런 상황을 단번에 바꿀 마법의 지팡이 같은 건 내게 없다. 그저 내 일을 할 뿐이다." -집필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나.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쓸수록 쉬워졌다. 이 책을 완성함으로써 나는 이 서사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 -자신을 '인도 밖에서 글을 쓰는 인도 작가'라고 정의했다. "내가 인도 출신이라는 점은 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내가 쓰는 모든 작품에 정체성 이슈를 담지는 않는다. 『나이프』도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대에 문학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논의에서 나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글쓰기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니까. 시각 미디어는 대체로 덧없고 순간을 위해 만들어지는 반면, 좋은 책은 오래가도록 만들어진다." -책에는 시에 대한 애정도 드러난다. "시는 가장 고귀한 형식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를 하나만 추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나이프』에서 인용한 E. E. 커밍스의 시를 추천한다."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는 세상에서 문학의 역할은. "문학은 인류에게 인류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다. 우리의 유산이며 초상이다." 홍지우 기자

헤즈볼라 수장 제거 "세계 더 안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공습으로 제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사진) 국무부 장관은 30일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이슬람 국가(ISIS) 격퇴를 위한 국제 연합체' 장관급 회의에서 "나스랄라는 잔혹한 테러리스트였다" "레바논과 중동 지역, 세계는 그가 없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동안 여러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의 민간인 등



이 나스랄라 때문에 희생됐다면서 "나스랄라가 이끄는 동안 헤즈볼라는 중동 전역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레바논이 국가로서 앞으로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동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진정한 안보를 제공하고 국경 양쪽에 있는 주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해법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 지역과 전 세계의 우리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가자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며, 지역 전체를 위해 더 지속적이며 확실한 평화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휴전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이스라엘이 지난달 27일 레바논을 공습해 나스랄라를 비롯한 헤즈볼라 고위급을 제거하자 중동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는 등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100세 앞둔 카터에 메시지... "너무나 존경"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쓰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100세 생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29일 정치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당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찬사를 담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카터 전 대통령은 10월 1일 100번째 생일을 맞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 "당신을 너무나도 존경한다"면서 재임 때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1978년 귀속말을 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좌측)과 조 바이든 대통령(우측)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등을 통해 미국 사회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조선 상원의원이었던 1976년 대선 당시 상원에서 처음으로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지

지를 선언했다는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양심이라는 사실을 젊은 상원의원 시절에도 알 수 있었다"며 "당신은 용기와 확신, 공감의 목소리이자 우리 가족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평생을 함께 한 부인 로절린 여사를 잃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넘길 경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 사례가 된다.

"바이든처럼 해"... '비인기 정상' 솔츠·트뤼도·기시다 사퇴 압박

"바이든 하세요(Do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에 등 떠밀려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대선 주자에서 자진 사퇴한 전례가 세계 주요 국가로도 번질 조짐이라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29일 보도했다. 독일, 캐나다, 일본에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진 정상들을 향해 '바이든처럼' 스스로 물러나라는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판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점에서 현직 정상이 정권 계승을 위해 눈치껏 다른 주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이든 하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독일 유력지 슈피겔은 이달 4일자 보도에서 내년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올라프 솔츠 총리를 겨냥해 "솔츠는

왜 바이든처럼 하지 않는가'라며 대놓고 퇴진을 압박했다.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솔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이 참패하고 극우 정당이 약진한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슈피겔은 솔츠 총리 퇴진이 "그의 당, 국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쓴소리를 날렸다. 캐나다 상황도 비슷하다. 쥘스텐 트뤼도 총리는 최우방이자 이웃인 미국에서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 사퇴 발표가 나오자마자 캐나다 유력 방송사인 CBC에서 자신을 겨냥해 "트뤼도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을까?"라며 '눈치'를 주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2015년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트뤼도는 가까스로 재임에는 성공했으나 임기 내내 스캔들

이 끊이지 않고 자유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내년 3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미 '바이든 따라하기'를 실행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지난달 일찍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 그간 자민당은 지난해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를 향한 퇴진 압박이 가라앉지 않았다.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수다 데이비드-빌프 수석 연구원은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향해 전략을 바꾸라는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끝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Shinseongja Law Firm. Headline: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Sub-headline: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Services: 교통사고 최대보상, 개인상해 / 민사소송,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Contact: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MD 301.775.2774.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CUCKOO

10월 프로모션

# FALL IN CUCKOO

기간 9.27.2024 - 10.29.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10월 내 설치

10월 한정

3 HOT DEALS

SPECIAL GIVEAWAY

~~\$999~~ → \$549

+1년치  
필터제공



펫 드라이어

Special Offer 1

특별가 \$449

+1년치  
필터제공



마이크로 버블 클렌저

Special Offer 2

BUY ONE

GET ONE  
50%



CBT-11030RW

Special Offer 3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일시불 또는 렌탈 계약 SALE

일시불 구매  
최대  
30%할인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렌탈 계약  
다운페이  
OFF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Special  
Giveaway



안마의자 SALE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Special Giveaway

\*3D의 경우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이스라엘, 헤즈볼라 대원 동선 DB화... 목소리까지 분석했다

**정보전 승자 된 이스라엘**  
2006년 나스랄라 암살 실패 이후 방대한 데이터 수집으로 방향 틀어 천재 자폐증 병사가 위성사진 판독 길 위 보강재 식별해 병커 등 찾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망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내부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은 이스라엘 시킨트(신호 정보) 담당 8200부대, 이스라엘군 정보국 야만, 시각적 이미지에서 정보를 얻는 9900부대 등에 주목했다. 레바논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헤즈볼라의 반격에도 이스라엘인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건 양측 정보 역량 등의 격차가 가져온 결과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의 34일간 전쟁 당시 나스랄라 암살을 세 번이나 실패한 뒤 헤즈볼라에 대한 정보 수집

방향을 대폭 조정했다.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영역, 이란 혁명수비대와와 관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살살이 살폈다. 특히 8200부대와 야만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8200부대는 컴퓨터 분야에 특화된 이스라엘의 상위권 고교 인재들이 지원하는 곳으로, 적들이 보내는 유·무선 신호를 가로채 군사정보를 뽑아낸다. 야만은 해외 담당 모사드, 국내 담당 시벳와 다른 군 정보기관으로 8200부대뿐 아니라 휴민트(인적 정보망) 담당인 504부대, 최첨단 기술 장비를 맡는 81부대가 야만 소속이다. 돌과구를 마련한 건 2012년 헤즈볼라가 시리아에 조직원을 파견했을 때다. 알 아사드 정권은 이슬람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가 주축인데, 역시 시아파인 헤즈볼라와 동맹 관계였다. 아사드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헤

즈볼라 대원들이 파견됐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전역에서 반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시리아 정보기관, 그리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러시아 정보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을 감시하던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은 물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헤즈볼라가 정기적으로 사용한 '순교자 포스터' 형태 부고도 활용했다. 이들의 장례식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위 지도자들도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사망한 헤즈볼라 대원의 출신 지역과 사망 경위, 친구들이 부고를 공유한 SNS 계정도 체크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정찰 위성과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해킹 기술로 헤즈볼라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을 도청해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이스라엘군의 9900부대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시각적 이미지를 조사해 사소한 변

화까지 찾는 알고리즘을 작성했다. 예컨대 길가, 터널 통풍구의 콘크리트 보강재를 식별해 급조 폭발물, 지하 병커를 찾아내는 식이었다. 9900부대는 일반인들은 알아채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를 판독할 수 있는 천재 자폐증 병사들이 위성사진 판독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헤즈볼라 대원을 파악하면 그의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 패턴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 해킹한 CCTV 카메라, 심지어 TV 리모컨 마이크에 포착된 목소리까지 활용해 신원을 구별했다고 한다. 그렇게 감시 대상 요원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지면, 이스라엘 정보장교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수년간 표적을 파악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 3일간 이스라엘 전투기가 표적 3000곳 이상을 타격할 수 있었다. **백현일 기자**



**화염에 휩싸인 후티 반군 근거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후티 반군 시설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예멘의 항구도시 호데이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벤쿠리온 공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신화=연합뉴스]**

## 1700km밖 후티 반군 이어 베이루트 도심도 폭격

**이스라엘, 친이란 세력 연쇄공습**  
이란 "레바논 홀로 두지 않겠다" 천명 외신은 "이란, 경제난에 보복 딜레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30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대상이 헤즈볼라를 넘어 중동 무장세력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을 후원해 온 이란은 보복의사를 밝혔지만 외신들은 이란이 분쟁 개입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습으로 이란과 우호관계에 있던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의 지도부 3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나 긴밀한 관계인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자마 이슬라미야 조직원들도 사망했다. 이들은 헤즈볼라와는 달리 중동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저항의 축'으로 분류되지 않던 세력들이다. 알자지라는 "PFLP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전쟁과 관계가 없는 단체였다"며 "이스라엘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엔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1700km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 근거지를 폭격했다. 헤즈볼라 2인자 나임 가셈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적과 계속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2006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승리할 것이며, 지금은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전투는 길어질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내부 절차에 따라 (나스랄라의 후임이 될) 새 사무총장을 가능한 한 빨리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헤즈볼라·하마스 등을 후원하는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을 차례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레바논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란이 딜레마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개입을 초래한다. 또 오랜 기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으로선 전쟁할 여력도 없다

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은 1980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재래식 화력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보도했다. 중동의 복잡한 역학관계도 이란이 직접 개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힌다. 수니파가 주류인 중동에선 비이람계인 시아파 이란이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박현준 기자**

## 오스트리아 총선 '나치 계열' 극우 정당이 1위

이탈리아·프랑스 이어 극우 포퓰리즘 반이민자·반이슬람 내세워 세 확장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1950년대 전직 나치 친위대(SS) 장교들이 설립한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1위를 기록했다. 반이민자·반이슬람을 고리로 유럽 극우 정당

돌풍이 네덜란드(자유당), 이탈리아(이탈리아형제들), 프랑스(국민연합)에 이어 오스트리아를 강타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총선 공식 예비 집계 결과 자유당이 29.2%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칼 네하머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은 26.5%로 2위를 기

록했고,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21%)이 그 뒤를 이었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승리를 선언하면서 공영방송 ORF 인터뷰에서 "오늘 유권자들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

끌 준비가 됐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당권을 쥔 키클 대표는 이민자 범죄에 대한 공포, 높은 인플레이션, 코로나 시기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등을 이용해 세를 확장해 왔다. 친러 성향의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키클 대표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국민의 총리'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나치 선전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상징하는 용어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의석수 과반 확보에는 실패한 자유당은 집권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 집권당인 국민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자유당과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네하머 총리는 키클 대표가 물러나면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장윤서 기자**



###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조앤킴)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킴)**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w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Licensed Agent

## [ 메디케어 무료신청 ]

1959, 1960년생이신 분들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약값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LIS 신청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상담 내용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b>이중 특별 필요 플랜</b>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웰빙모아 Wellbeing More

# 가을 할인



★세일기간★  
9/1~9/31까지  
선착순 한정세일

여성의류

**50% OFF**

COUPON

겨울이불

**50% OFF**

COUPON

잠옷, 내복, 모자, 가방, 강아지옷

**20% OFF**

COUPON

시즌이불

**20% OFF**

COUPON



깊이가 다른  
1도 제어기술!

혜택이 가득한 가을 세일 이벤트

## 숙면, 기술을 써!

대한민국 숙면의 기술 |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매트  
**10% off!**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쾌적 숙면 가전/무전자파/1mm 초슬림매트/분리난방/보조난방,  
숙면모드/살균모드/다중안전장치/차일드락/타이머 등등



카본매트  
**20% off!**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쾌적 숙면 가전/직류 저전압/전자파 안심/  
분리난방/Wi-Fi/스마트히팅케어/슬립케어  
시스템/원격외선/이지워셔블/다중안전시스템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곰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 하하핑크 옆

**영업시간**  
9:30am ~ 8pm  
(365일)

# “이태원 참사는 인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은 무죄

(이임재)

(박희영)

법원 “밀집사고 예견 가능했다”  
702일만에 국가기관 책임 일부 인정  
국민보호 의무 있는 경찰만 유죄  
구청장은 직접 책임 없다고 판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 사진)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국가기관 책임자 두 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엇갈렸다. 모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겐 유죄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59명이 숨진 참사의 국가기관 책임이 일부 인정된 셈이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구형량은 모두 징역 7년이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송병주 전 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

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가 갈린 건 주요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직접 책임 소재’ 여부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원은 경찰에만 사전 대응, 사고 임박, 사고 이후 단계 모두에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적시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재난안전법 등에는 압사사고 등이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점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측 책임을 인정하며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주의 의무를 각자 다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던 인재”라며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헬러린 치안 유지 등을 종합하면 대규모 인명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가 아닌 더라도 군중 밀집에 의한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일 인파가 계속 늘고 112신고가 지속된 상황에서

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박 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고 직접 원인인 인파 유입, 밀집 군중에 대한 통제 권한이 행정기관에는 없다”며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시의 상황 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 사고와 관련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건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인재 참사 발생 시 경찰과 지자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척도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이번 참사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각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법리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책임이 커진 경찰에선 인파 밀집 예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경력 배치를 해야 한다는 예방의무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매뉴얼 등이 세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다 떠맡으면 일하는 경찰관 어깨는 너무 무겁다”는 불만소리도 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는 법정에서 오열하거나 법원을 떠나는 박 구청장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159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무죄가 나올 수 있냐”며 “정의를 위해 우리는 다시 싸워 반드시 박 구청장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찬규·박중서 기자

## 북핵 대응 전략사, 오늘 국군의날 출범…“전략자산 통합 지휘”

현무·F-35A·잠수함 등 지휘 통제  
국방장관 “북, 핵사용시 정권 종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통합 대응하는 콘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1일 공식 출범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지난 5월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된 진영승 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맡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략사 창설

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토대로 북한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것이 전략사의 주요 임무”라고 설명했다.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한 전략사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통합 지휘한다. 창설 초기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에 필요한 첨단 재래식 자산을 운용하

면서 핵전력에 버금가는 대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다. 향후 주요 사이버·우주 전력은 물론 정찰위성, 지대지 유도무기 같은 선제타격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과 다중 방공망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자산까지도 전략사의 지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근평 기자

## 태풍 ‘끄라톤’ 한반도로 북상 가능성… 서울 내일 아침 최저 11도

대만 관통 후 세력 크게 약해질 듯  
기상청 “태풍 경로 변동성 매우 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매우 강’ 수준의 가을 태풍으로 몸집을 키우며 이동하고 있다. 끄라톤은 2~3일 대만을 관통한 이후 한반도 북상 가능성은 있지만 세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은 최대풍속이 초속 47m, 중심기압은 940hPa(헥토파스칼)로 강도 ‘매우 강’ 수준의 태

풍이다. 위성에서도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했다. 태풍 상륙을 앞둔 대만은 비상이 걸렸다. 대만 중앙 기상청은 끄라톤이 남부의 주요 항구 도시인 가오슝을 강타한 후 내륙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다. 끄라톤은 대만을 지나고 나면 세력이 급속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진로는 불확실성이 크다. 일

부 수치예보 모델은 끄라톤이 한반도로 접근하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4일 이후에 태풍이 기압골과 만나면서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로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린 뒤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내외가 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경우 1일 한낮 기온이 22도에 머물렀고, 2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로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징검다리 연휴인 3~4일에도 비 소식이 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지면서 남쪽과 동쪽 지방으로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천권필 기자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에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플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료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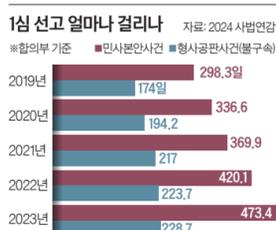
## 수잔 김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 “상가보증금 반환소송 7개월... 법원, 임대인에 소장도 안보내”

재판부, 서류 검토 이유로 늦어져 “사건 많으니 기다려달라 답변뿐”  
수노아과 호텔 난동도 재판 지연 “구속기간 넘겨 법원 풀려나 허탈”



“피고인은 2009~2010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로 소란을 피웠다.” 2010년 3월 31일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 취지는 간단했다. 당시 최종주(78)씨 등 시민단체 ‘좋은사법세상’ 회원 4명이 과거 최씨 손해배상소송을 패소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자 “대법관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 시위를 벌이다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후 이 사건은 14년6개월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14년간 62번의 재판 동안 이들은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 13회, 각종 이의신청 6회, 항고·재항고 등을 반복했다. 그사이 재판장은 13번 바뀌었고, 이들을 거쳐간 변호사만 12명이다. 올해 재판은 지난달 25일 딱 한 번 열렸다. 검찰은 “법원·검찰에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

가능하다”며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판사가 바뀔 때마다 이미 한 재판을 계속 갱신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이 늦어지길 바란 게 아니다. 공익을 위한 시위였기에 백절불굴로 무죄를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현상은 판사의 태업 탓으로 돌릴 수만 없는 복합적·구조적 원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사”라고 각종 지연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법원에 뚜렷한 제재 수단은 없다. 간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30일 청구지법에 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53)씨 등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선고에만 3년이 걸렸다. 이들은 변호인을 8번 교체하며 기록 파악을 이유로 기일을 미루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5번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자통 민중전위’ 사건, 제주지법 ‘ㅎㄱㅎ’ 사건, 수원지법 ‘민주노동집 투 간첩단’ 사건 1심도 같은 상황이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나 재판부 고발, 위험심판 제청, 관할이전 신청 등이 지연 수단으로 동원됐다. 그사이 간첩 혐의 피고인은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판권을 제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지연 기술은 법률시장에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불리한 의뢰인들은 재판을 질질 끌며 달라고 하고, 재판부도 알면서 모르는 척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도적 소송 지연, 남용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주의·제재를 주는 법원 내규 등을 고만해 볼 시점이 됐다”고 했다.

법원 사정으로 재판을 끄는 경우도 많다. 매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하는 재판 갱신 절차가 그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을 끈 사건은 녹취록을 다시 듣는 데만 수

**주요 재판지연 사례 및 유형**

사건	재판지연 사유	1심 재판 기간
좋은사법세상 검찰 직무방해 등	재판부 기피신청 13회 공판조서·재판진행 등 이의신청 6회 이송신청·기일변경신청·기일불출석·변호인해임	14년6개월(재판 중)
청주 간첩단 국보법 위반 등	재판부 기피신청 5회 즉시항고·재항고 3회	2년5개월(3명) 3년(1명)
남편·시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등	재판부 기피신청 11회 위험심판제청 3회 국민참여재판신청·기일변경신청·기일불출석	9년9개월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온 뒤로 사무분담 장기화 제도를 통해 갱신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점진적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5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B씨의 변호사는 “소장을 낸 지 7개월이 넘도록 관할이송 검토 등을 이유로 송달조차 안 되고 있다”며 “송달부터 12% 지연이자

가산되기 때문에 원고로서 송달 시점이 중요한데, 매달 ‘사건이 많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사소액사건은 이유도 없이 1년 넘게 기일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2021년 1년을 돌파해 지난해 15.8개월을 기록했다. 항소심 역시 고등법원 2019년 7.9개월→지난해 10.8개월, 지방법원 8.3개월→11개월로 증가세였다. 형사 재판도 구속기한 제약이 없는 불구속 사건에서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는 경향이 컸다. 불구속 사건의 형사합의부 1심 재판 일수는 2019년 174일→2021년 217일→지난해 228.7일로 매년 늘었다.

구속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수노아과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전원이 구속기한을 넘겨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도권 공판검사는 “구속기한 6개월 내에 재판이 안 끝나서 중범죄 피의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 허탈함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민·최서민·양수민 기자

## 1심 처리율 90%→123%... 법조계 “최근 서초동 시계 빨라졌다”

(2018년) (2023년)

1년내 들어온 사건보다 더 많이 처리 일각 “통계 나아졌다고 방심 안돼”

조희대 대법원이 ‘시간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법조계에 “서초동의 시계가 최근 빨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달 11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그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항소 이유 진술이 하루에 두 시간씩, 4일은 필요하다”는 검사 주장에 재판부는 “항소 이유 진술은 하루에 네 시간씩, 2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반 토막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5년(1810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해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가 일선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원장 재판’의 성과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12심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제도로 신속한 재판 분위기를 만들

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3~7월 1·2심 민사본안(합의·단독)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절반인 2324건(49.6%)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달 민사재판에 들어갔다 양측 추가 주장

이 없다고 하니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 늘렸다”고 말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처리 사건보다 많아 적체 상태였다. 하지만 그러다 사건 처리율이 2022년 135.6%, 2023년 123%로 2년 연속 접수 사건보다 처리 사건이 더 많았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통계가 나아졌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장기 미제 등 복잡한 사건만 남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 19년간 13차례 땀질한 종부세... 야당서도 “차라리 없애자”

과세 기준·부과 방식 등 개정에도 집값 안 잡히고 이종과세 논란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은 ‘땀질 입법’의 대명사다. 2005년 제정된 이 법은 지금까지 13차례나 개정됐다.

2005년 첫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다.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졌다. 종부세 도입 후 강남 집값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추고, 부과 방식을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으로 바

꿔 납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4%, 전국 아파트값은 14% 급등했다.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산세가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 이종과세 논란도 계속됐다.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한

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재조정하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일 때만 납부 대상이 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종과율을 높이면서도 2009년에 만든 ‘공시가 6억원 초과’ 부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119만5340

명으로 늘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1주택자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산발적으로 “차라리 없애자”(고민정 의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정민 기자

나만의 사진관

###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 사진 5' X 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복부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필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b>\$1,250,000</b>	<b>\$750,000</b>	<b>\$699,000</b>	<b>\$569,000</b>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 2.55/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티. Bathrooms)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 한동훈표 핵심 정책으로 추진

한, 추석 뒤 여의도연에 조사 지지 청년실업 문제로 반대 우려했지만 찬성 여론이 과반... 당내 본격 논의 여당 “민감주제, 여의도연 활용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년 연장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당초 반대가 클 것이라 예상과 달리 찬성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이 댕겨졌다. 30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유 의동 여연 원장은 지난달 26일 한 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 대표가 직접 추석 연휴 직후 유 원장에

게 지시해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국민 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더욱 심각해 질 노인 빈곤 등 복지제도 재정립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할 큰 정책 비전의 하나로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는 ▶법적 정년 60세 현행 유지나, 연장이나, 폐지나 ▶정년이 연장된다면 임금 삭감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임금 삭감에 찬성한다면 수용 가능한 임금 삭감 비율은 5·10·15% 등 얼마만큼이나 등 다층적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년 연장에 대한 전 반적인 여론은 반대보다 찬

성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의명을 원한 지도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이나 업무처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제법 있다”면서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정년 연장과 관련한 여론 향배가 큰 틀에서 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년 연장은 여권의 뜨거운 화두였다. 지난달 5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뒤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계속 고용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초까지 국민연금 개편안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 1차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고령화와 맞물린 정년 연장은 오래된 쟁점이지만 아직껏 구체적 대안이 없었던 것은 정치권이 이 이슈가 가진 휘발성으로 인해 논의 자체를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다가 바로 접기도 했다. 2020년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해 논란이 커지자, 이를 뒤 황덕순 당시 일 자리수석은 “아직 논의의 시작 단계”라

며 물러섰다.

한 대표도 청년 민심을 의식해 정년 연장 이슈를 쉽게 접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당내 인사가 적지 않았다. 이달 초 출범한 당 격차 해소특위(조경태 위원장)도 정년 연장을 핵심 안건으로 제안하려 했지만, 역풍 우려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방향을 틀어 청년실업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여연 여론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당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 대표는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정책 주제에 대해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한동훈

## 정부, 김 여사·순직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

윤대통령·슬로바키아 총리 정상회담 양국 관계 격상...원전 협력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슬로바키아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아시아 국가 중 슬로바키아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포함해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심화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양자 관계도 그에 맞춰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원자력 분야 협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5월 아슬로프스케 보후니체 원전 단지에서 5호기인 1200MW(메가와트)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초 총리가 회담 중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해 수차례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축구 대표팀 감독선발 진상 밝혀야”=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

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오른쪽 둘째)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무역투자추진포럼임무 및 포괄적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테니사 사코바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문서 교환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박태인 기자



징검다리 연휴 시작... 오늘 비 오고 쌀쌀 30일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핑크몰리와 코스모스 사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군의 날인 오늘(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다.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내외가 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 최상목·이창용 “넓은 경제구조론 한계”

(재정·통화 주장)

‘재정 주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주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넓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11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서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기재부 청사에서 기재부·한은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이란 주제의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다.

최 부총리는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거기에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넓은 경제 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하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면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구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계층 이동성 약화 등 겹겹이 쌓여 ‘고르디

우스의 매듭’에 가까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조 개혁 없이 기존의 통화 혹은 재정 정책만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은 금통위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기존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

구조 개혁 해법으로 최 부총리는 “정보기술(IT)과 수출 강국인 한국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음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w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 시켰다

(反中)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논란으로 캐나다가 혼란을 치르고 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 때 중국 정보당국이 개입한 의혹이 캐나다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퀘벡주 마리-조제 호그 판사는 지난 5월 3일 “1차 조사결과 중국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올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외국 선거개입이 공식 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된 것으로,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 현대 정보전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중국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배경과 실상, 그리고 캐나다의 대응 과정도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은 2018년 양국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됐다. 그해 12월 캐나다는 중국 최대통신사인 화웨이의 명망자(孟舟) 부회장을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했다. 당시 이란 수출금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이던 부회장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당국이 체포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산 식품 수입 대폭 축소, 중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인 2명의 스파이 혐의 체포 등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국 관계는 급냉됐다.

### 토론토·밴쿠버 영사관이 작전 지휘소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9년 캐나다 총선이 치러졌다. 보수당(CPC)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철수, 대중 수입 축소,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등 반중(反中) 정책을 선거 캠페인으로 삼았다. 그러자 중국 정보기관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수당의 반중 정치인을 낙선시키고 진보세력인 자유당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다. 우선 밀그림부터 그렸다. 무엇보다 170만 명에 이르는 캐나다의 중국 교민사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계가 캐나다 전체 인구의 4.7%에 이르기 때문에 박빙의 선거 판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밀 지원 활동을 정상적인 교민권익 보호로 위장하기 위해 교민업무를 담당하는 토론토와 밴쿠버 영사관을 작전지휘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선거 캠페인 개입 방법은 오프라인 지원이 제한될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특정 방식이 캐나다 당국에 탐지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기획했다.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중국 정보기관의 집중 공격을 받아 낙선한 보수당(CPC)의 케니 치우(Kenny Chiu) 전 의원. [중앙포토]

이 같은 밀그림을 토대로 친중 정치인 지원부터 나섰다. 이를 위해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주로 동원했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도왔기 때문에 큰 의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선거자금도 친중 교민인사들이 자유당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형태로 지원해 외관상 문제 없게 처리했다. 친중 정치인 지원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반중 정치인 낙선 운동은 심각한 내정간섭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고 은밀하게 전개했다. 먼저 중국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게 선거 분위기가 보수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주로 평론가나 언론을 통해 대중 관계 악화는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이며, 특히 캐나다가 미국 압력에 못 이겨 대만을 지지하면 중국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유권자들의 경제·안보 불안 심리를 유발

했다.

골수 반중 정치인 공격은 더 집요했다. 눈에 가시인 보수당 케니 치우 의원이 대표적 예다. 홍콩 태생 이민자인 치우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중 인사가 됐다. 특히 2021년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해외영향력등록법(FIRA)을 발의했다. 잘 알려진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답습한 것으로 주목적은 중국 견제였다. 중국 정보당국은 그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반중 인사로 낙인찍어 중국계 유권자들의 반감을 확산시켰다. 가령 치우가 발의한 해외영향력등록법이 통과되면 중국계 캐나다인들은 자동적으로 외국 로비스트로 등록돼 감시대상이 된다고 외곽했다. 또한 교육에 민감한 학부모 단체를 통해 치우가 당선되면 캐나다내 중국어 학교가 모두 문을 닫

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퍼뜨렸다. 이처럼 그가 당선되면 중국 교민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흑색선전했다. 결국 치우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중국 교민사회의 지지를 잃고 2021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치우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해 반중 정치인 전체에게 겁을 준 효과도 있었다.

한편 캐나다 정치권은 이 같은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처음에는 극도로 신중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캐나다 맥길대, 앨버타대 등 우수 대학들이 선거관의 허위정보 연구를 통해 중국의 개입을 확인하자 정치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즈음 중국 밴쿠버 총영사 통사오링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두 명의 보수당 의원을 낙선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게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언론이 집중 취재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정보기관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총리에게 ‘정부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보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쯤 되자 트뤼도 총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데이비드 존스톤 전 총독을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위임했다. 그런데 2023년 5월 존스톤 특별조사관이 “언론 보도는 부정확하며 총리가 선거 정보를 무시했거나 당파적으로 이용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언론·시민단체·보수당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존스톤이 오히려 화를 키운 격이 됐다. 트뤼도 총리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며 2023년 9월 중국의 선거 개입을 공개 조사할 ‘외국의 선거개입조사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ssion)’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마리-조제 호그 판사를 전격 임명했다. 더 이상 불신 논란이 확산되지 않게 캐나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법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단을 내렸다.

위원장에 취임한 호그 판사는 공개 청문회, 비공개 증언, 정보당국의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2019년·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며, 비록 전체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계 교민들이 많은 선거구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알고 있었던 캐나다 정보당국이 국가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책임감 있게 보고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 개방적 선거제도, 외부세력 개입에 취약

결론적으로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으며, 중국이 일정 부분 정치적 효과를 본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선거 개입은 새로운 것도, 놀랄 것도 아니다.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냉전 시대부터 존재해온 영향력 정보전의 한 형태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9년 허버트대 케네디스쿨의 왈튼 박사가 <스파이, 선거 개입, 허위정보 : 과거와 현재>라는 연구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밝혔다. 카네기 멜론대의 레빈 교수는 2016년 <강대국의 선거 개입>이라는 논문에서 1946년에서 2000년까지 전세계 937회 선거 중 알려진 것만도 미국이 81회, 러시아(소련 포함)가 36회 개입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다.

정치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정보전이다. 외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불신을 날게 하고 이는 곧 민주주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마리-조제 호그 판사가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 “캐나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캐나다의 사례에서 또다시 확인된 것처럼 개방적인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여론 외곽 등 외부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개방적인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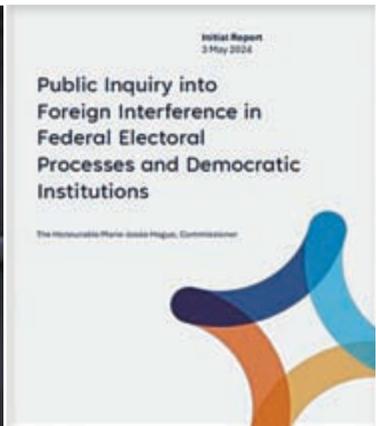


**중국 정보기관**  
공산당 소속의 통일전선부, 정부 소속의 국가안전부와 공안부, 군 소속의 연합참모부 정보국과 정치공작부, 사이버 정보사령부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통일전선부와 국가안전부가 핵심이다.

**캐나다 정보기관**  
국내·해외정보를 모두 담당하는 캐나다 안보정보국(CSIS), 신호정보를 전담하는 신호정보국(CSE), 군 정보를 전담하는 정보사령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캐나다 외국 선거개입조사위원회 위원장 마리-조제 호그(왼쪽 사진) 판사와 1차 조사 결과 보고서. 중국뿐 아니라 인도,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점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중앙포토, 사진 FIC 홈페이지]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우리말 바꾸기**

**‘~화하다’ ‘~화되다’**

‘~화하다’와 ‘~화되다’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성형수술이 보편화했다” “성형수술이 보편화됐다”, 처럼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하다’ ‘~화되다’에서 ‘화’는 한자어로 ‘될 화(化) 자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화(化)’에 ‘되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화+하다’는 괜찮지만 ‘화+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결합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을 맺다→결론을 내다’, ‘계약을 맺다→계약을 하다’, ‘공감을 느끼다→공감을 하다’, ‘낙엽이 떨어지다→낙엽이 지다’가 이런 예다.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의미의 중복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조합들이다.

‘~화하다’ ‘~화되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하다’로만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어생활에서 이미 ‘~화되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은 두 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해가죽이 보편화했다(보편화됐다)”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화되다’는 의미 중복이어서 싫고 ‘~화하다’는 부자연스러워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있다. 아예 ‘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합의 사항이 완전 무효화됐다”는 “합의 사항이 완전 무효가 됐다”처럼 말을 바꾸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재정칼럼**

**난관에 부딪힌 신용의무법**



**이명석**  
재정학 박사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신용의무(Fiduciary)법’의 시행이 어려울 듯하다. ‘신용의무법’은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지난달 ‘보험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신용의무법의 9월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는 주식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에게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고객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방 노동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은퇴자금 보호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신용의무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험 업계,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극심한 반대와 소송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직장이나 자영업자의 모든 은퇴플랜(401K, 403B, TSP, SEP or Simple IRA, 등)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의 티모시 D. 하우저 부차관보는 “신용의무법은 재정설계사들이 더 신중하고, 높은 투자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건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가령 고객이 재정설계사가 추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판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 투자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연방정부 추정에 따르면 은퇴나 이직으로 2022년에만 7700억 달러 규모의 은퇴자금 계좌 이동이 있었다. 신용의무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규정은 재정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위해 고객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투자 조건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의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업계 측은 법이 시행되면 상담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업체인 모닝스타(Morningstar)는 신용의무법이 시행되면 어뉴이티 투자자들만 해도 향후 10년간 무려 325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그만큼 보험 업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정부 기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만이 신용 의무가 있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실히 신용의무를 준수하는지는 재정설계사 개인에게 달려있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인들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면서 ‘신용 의무’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장’에 약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설계사에게 ‘신용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직한 재정설계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평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다.

**살며 생각하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김미연**  
수필가

얼마 전에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묵었다. 그녀의 운동 루틴은 여행을 와도 여전했다. 제일 하기 싫은 것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한다. 동네 길을 구석 구석 돌고 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다. 나는 평소에 걸어도 20분 정도가 고작이다. 걷는 흥내만 내는 나와는 달리, 동생은 진지하게 걸었다. 나도 따라서 열심히 걸었다. 동생은 걷기가 끝나면 스트레칭을 했다.

그녀는 두 다리를 살짝 어긋나게 걸었다. 팔을 위로 뻗치고 허리를 굽혀서 손을 땅에 댄다. 하늘을 향해 기원이라도 하는 듯 동작이 엄숙하다. 온몸에서 땀을 줄줄 흘리는 동생이 신기했다.

“언니 등이 굽었어.” 그녀의 움직임이 명칭히 보고 있는 나에게 말했다. 그냥 서 있기도 멋쩍었다. 나도 스트레칭을 따라 했다. 엉성한 동작으로 며칠을 따라 했더니 뒤통가, 허리께에 고무줄이라도 두른 것처럼 몸체가 늘어나는 것 같았다. 어쨌쪼죽지를 펴고 가슴을 세우니 숨이 잘 쉬어졌다.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잘했어! 내가 기분 좋게 해 줄게.’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심장일까? 뇌일까? 아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머리가 반응한다. 몸을 움직이면, 심장

이 뛰고, 뇌까지 올라간다. 뇌에서 널브러져 있던 물질이 출렁임을 받아서 게으름에서 깨어난다. 서로 같은 물질을 찾아 헤매면서 연결고리가 탄탄해진다. 뇌세포 시냅스가 두꺼워질 때, 뇌는 기운이 넘친다.

이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혹은 엔도르핀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다. 도파민은 뇌 속에 점점이 흩어져 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도파민은 소량이라서 별로 기분을 좌우하지 못한다. 뇌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두면 게으르기 그지없다. 원시 동굴인들은 사냥을 위해 실패가 없었다. 온종일 뛰어다니고 나면, 뇌에서 도파민이 딱처럼 솟았다. 뇌는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기분이 좋아야 사람들이 계속할 테니까 말이다.

또한 뇌는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뇌는 2만 년 전 원시인의 뇌와 비슷하다. 동굴인은 누가 나타나면 일단 먼저 활을 쏘았다. 적인지 친구인지 생각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저지르고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했다. 내가 적을 죽였는가? 우리 편을 죽였는가? 실수였는가? 반성이라는 생각은 항상 나중에 따라온다. 뇌는 행동이 먼저고 생각이 더디다. 만약 우울하다면, 머리 싸매고 생각해 봤자 소용없다. 별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걸으시라!

동생이 왜 그렇게 운동에 집중하는지 알 것 같다. 햇빛을 받으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낮에 쓰다 남은 세로토닌은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하여 잠까지 잘 오게 한다. ‘별것’ 아닌 걷기와 ‘별것’ 아닌 스트레칭을 첫 새벽부터 하는 모습에서 나는 감동을 받았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맞다. 나를 잘 돌보는 것...

동생은 잠깐 다니러 온 사이에 나에게 무언인가를 남기고 돌아갔다. 선한 에너지는 전파력이 강하다. 청바지를 입고 트렁크를 끄는 동생의 뒷모습이 날씬해 보였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환 3, 2 라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넬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화장실, 새 마루, 새 카펫 (지하방, 풀바스, 우드 fireplace) 선풍, 풀리우, 워드아웃
- **풀스처치 콘도 \$249,900**  
방 1, 환 1, 전체 리모넬링 495/66/50, 모자익, 연로링메트로
- **스프링필드 벽돌 타운 하우스 \$3,200**  
방 3, 환 3.5, 차고,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 아리랑 청소년 문화축제 & 한글날 기념식



**일시** 2024년 10월 6일 (일) 오후 3시  
**장소** 팟타스코 벨리 주립공원 내 (무궁화 동산)  
 8020 Baltimore National Like., Ellicott City, MD 21043

**대회장: 강 고 은**

- 문의: 준비위원장 황보철 206-851-5700  
 무궁화동산 조성 위원장 권명원 301-685-9821

### 준비하는 사람들

김상우 · 고은정 · 권명원 · 김경태 · 김경훈 · 김양곤 · 김오희 · 유미혜 · 마크 장 · 박금달 · 박진동 · 박태수 · 밥 허 유승규 · 유영집 · 이선옥 · 임병문 · 장세영 · 폴 정 · 조명옥 · 지용연 · 진철민 · 한정란 · 박철환 · Catherine. Lee. Jones

### 특별후원

옴니화재 · 재외동포청 · 아리랑 건강복지센터 · 김경태 회계사 · 콜럼비아 약국

### 협찬

MUSA Martial Arts (Silver Spring) · 목제 권명원 · 풍물패 한판 · 주상희 무용단  
중앙일보 · 한국일보

### 개인 및 단체 함께하신 분들

손형남(전호남향우회장) · 조전화로 · 니코 · 신촌 · 모드니에 · 콩포차 (볼티모어시티) · 고소희 꽃집 · 베세토(최광주 대표)  
 편한나라 척추신경 (송영성 원장) · 다래원 (벨츠빌) · 백성옥&박수지 부동산 · 정승연 회계사 · ACE Auto (남정길 대표)  
 부가티골프동호회 (회장 김인덕) · 메릴랜드 호남향우회 (회장 박원일) · 보네쁘티 제과점 (한훈섭 대표)  
 코비 정부조달 협회 (메튜리 회장) · 알렉스 김 (전호남향우회장) · 모커리 척추신경병원 (김동국 원장) · KOHO (대표 손영석)  
 동중부장애인 체육회 (회장 남정길) · MD 한인회 (회장 안수화) · 폴정 부동산 · MD 체육회 (회장 오세백) · 옛날떡집  
 MD 총한인회 (회장 정현숙) · MD 식품주류협회 (회장 마리오 장) · MD 시민협회 (회장 장영란) · 정재철 (전호남향우회장)  
 몽고메리 한인회 (회장 김용하) · 평안한방병원 (김경훈 원장) · UNBS (대표 조용보) · 미주 태권도 장학회 (회장 장세영)  
 YL Design Factory, LLC (대표 이영하) · 권대성 회계사 · 강창구 (전민주평통워싱턴협의회회장) · 유승규 프로  
 에이스 치과 (원장 신의식) · 마이 라이프 재단 (회장 이정숙) · 남스 태권도 (관장 남정구) · 영한의원(원장 유영집)  
 엘리콧시티 약국 · 황용식 · 1st Green Home (Tony Han)

한인 여러분들의 아리랑 USA 공동체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개인이나 단체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 4997 Ellis Ln., Ellicott City, MD 21043 Jang Doo Seok **Pay to** Arirang USA INC

주최: **아리랑 USA 공동체** Arirang USA Community **회장 장두석**  
 T. 443-691-7968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http://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레나 고**

**윤태웅**

월	여행지	기간	가격
12월	<b>이태리 일주</b>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크리스마스 특선	6박 7일 12/23~12/29	\$2,390+항공
3월	<b>남미 일주</b>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25	\$5,490+항공
4월	<b>동유럽 &amp; 크로아티아 발칸</b>	13박14일 4/30~5/13/25	\$4,590+항공
1월	<b>파타고니아</b>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의 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25	\$6,790+항공
3월	<b>브라질 아르헨티나</b>	7박 8일 3/17~3/24/25	\$3,190+항공
5월	<b>그리스 &amp; 튀르키예</b>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25	\$2,990+항공
1월	<b>인도</b> 신비의 인도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 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25	\$3,390+항공
3월	<b>일본</b>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27~4/5/25	\$3,990+항공
5월	<b>스페인 &amp; 포르투갈</b>	10박11일 5/13~5/23/25	\$3,390+항공
2월	<b>이집트 나일강 크루즈</b>	9박 10일 2/17~2/26/25	\$3,590+항공
4월	<b>남프랑스</b> 수세기 역사를 보유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봄방학 특선	6박 7일 4/14~4/20/25	\$2,990+항공
6월	<b>아이슬란드</b> 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8박 9일 6/3~6/11/25	\$5,690+항공
2월	<b>아프리카 &amp; 두바이</b>	13박14일 2/20~3/5/25	\$11,500+항공
4월	<b>정통 동유럽</b>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 9일 4/30~5/8/25	\$3,390+항공
6월	<b>스위스 알프스</b> 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	8박 9일 6/10~6/18/25	\$4,590+항공

###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부터(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흥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흥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흥격 고국일주 3차(영)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27~7/04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8/14~8/20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090+항공
8/29~9/01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8~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2190(항공포함)
9/09~9/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9/16~9/26	고흥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9/24~10/04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9/30~10/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9/30~10/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10/07~10/13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9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7~10/17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흥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1~10/30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9박10일 \$22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11일 \$35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흥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마감  
6차 10/29~11/8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590+항공  
푸켓 \$599+항공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대만 \$499+항공  
대만 \$690+항공  
싱가포르 \$790+항공

**일본 여행**

동경 \$999+항공  
오사카 \$999+항공  
일본완원일주 \$2690+항공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통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전주 안목마을 라안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린조선/경주 라안호텔/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6차 모두 제주 배고 다이나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이나나 일본은 일일정액으로 선택 가능

**서남권** 3박 4일 \$899+항공 매주 일

**동해권** 4박 5일 \$999+항공 매주 금

**서남+제주** 5박 6일 \$1499+항공 매주 일

**전국일주** 9박 10일 \$2149+항공 매주 일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백화점/서울백화점/가천대백화점

##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11/14, 12/12

##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뜨랑블랑 \$950  
몬트리올/퀘벡 10/7, 10/14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환영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10/07, 10/14, 10/28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중음) \$199(주말)

##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1, 2024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버클리 분교로 시작 ... 100년만에 넘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리즈 ② UCLA·UC샌디에이고

남가주의 UC(University of California)계 주립대학은 UCLA를 필두로 UC샌디에이고, UC샌타바버라, UC버바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UCLA는 심지어 UC버클리를 모르는 외국에서도 알 정도로 UC의 간판 대학이다. UCLA는 특히 문화 예술과 공학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대학이다. 또한 UCLA를 바짝 뒤쫓고 있는 대학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UCSD다. 두 대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문화·인종·경제 다양성 최고 수준  
문리대 UC계열 대학 중 최대 규모  
UCSD 레지넨셜칼리지로 큰 발전

**#UCLA는**  
남가주 소재 UC계 대학의 대표는 단연 UCLA이다. UC계 대학이 오로지 UC버클리만 있었던 20세기 초인 1919년 버클리의 남부 분교로 시작됐다. 최초 학교는 1882년이지만 정식으로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지는 100년밖에 안된 셈이다. 하지만 이미 버클리를 넘어서고 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대학순위에서 버클리와 공동 15위가 된 것은 물론, 공립대학 순위에서도 1위,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18위에 오른만큼 발전했다.

이런 급속한 발전에는 성공한 동문들의 막대한 기부금의 역할이 크다. 공립대학으로는 최대 기부금을 받는 학교가 됐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벨상 수상자 16명을 배출한 공부만 큼 스포츠팀이 강하고 남가주 대학병원의 대표격인 로널드레이크인 메디컬 센터, 할리우드가 인근에 있어 수많은 감독들이 UCLA동문이라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최상위권 대학중 인종 다양성, 문화 다양성, 경제 다양성이 가장 높다.

**#UCLA의 단과 대학과 구성**  
UCLA 학부 교육은 문리대(L&S)에

서 맡고 있는데 UC계 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크다. 50개 학과에 99개 전공, 학부생 2만5천명, 대학원생이 2700명, 교원이 900명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칼리지'라고 불린다.

단(Dean)이 책임자인 산하 디비전에는 인문학(어문학, 법철학, 음악학, 지역학, 종교학 등), 사회과학(항공우주학, 흑인학, 인류학, 고고학, 지리학, 경제학, 사학, 정치학, 군사학 등), 자연과학(대기학, 물리학, 수학, 통계학, 지구과학 등), 생명과학(생물학, 심리학, 사회및 유전학, 분자유전학 등), 학부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이외, 아트및 건축대학, 교육및 정보대학, 헨리 새뮤얼 공학및 응용과학 대학, 허브 앨퍼트 음악대학, 간호대학, 연극영화TV대학, 리스킨 공공정책대학도 학부 과정을 두고 있다.

대학원만 있는 경우는, 법과대학원 앤더슨경영대학원, 계겐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조너선 캐린 필딩 공공보건대학원이다.

US뉴스 대학순위는 공동 15위를 비롯해 경영대학원, 의과대학원이 10위권, 미술대학원이 4위권이다. 전국적으로 톱20에 드는 학부 프로그램은 미술, 임상심리학, 심리학, 교육학, 영어, 수학, 사회학, 사학, 공공보건학, 컴퓨터사이언스,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지구과학, 공공정책학, 도서관학및 정보학, 화학, 공학, 물리학, 생물학, 통계학 등이다.



1945년 이전 UCLA의 웨스트우드 캠퍼스의 모습을 그린 포스트카드.

**#UCLA의 신입생 프로필**

UCLA의 학부생은 2020년 기준으로 아시아인 29%, 백인 26%, 히스패닉 22%, 외국유학생 10%, 흑인 3%, 기타 9%로 구성돼 있다. 저소득층은 25%이고 중상류는 75%다. 2022년 입시 결과로 합격률은 8.6%이고 평균 GPA(weighted)는 4.21-4.31이다.

**#UC샌디에이고는**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에 소재한 US샌디에이고는 원래 UC버클리의 스크립스해양연구소가 모태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교육 수요가 폭발하면서 1960년 UC의 한 캠퍼스가 됐다. 시작이 연구소라서 그렇지 매년 연구에 쏟는 자금과 지원이 막대하다. 경제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우주항공, 해양연구, 기후 연구를 비롯해 경제학,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생물, 생명공학, 해양학 분야는 세계 최고다.

샌디에이고 슈퍼컴퓨터 센터,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UCSD병원, 사크 생물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US뉴스 대학 순위는 공동 28위이고 톱20위에 드는 학부 프로그램은 정치학, 공학, 미술, 경제학, 심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컴퓨터사이언스, 수학, 화학이다.

**#UC샌디에이고의 대학 구성**

UC샌디에이고는 다른 캠퍼스와 다르게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구성을 본떠서 만들었다. 각각의 대학마다 고유의 캠퍼스를 지니고, 각각의 대학마다 졸업에 위한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과 고급 영어과정을 제공한다. 독특하고 중요한 시스템인 레지넨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시스템은 총 8개의 대학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부 학생은 소속 대학에 상관없이 어느 전공이나 선택이 가능하며 총 114개의 학과를 제공한다. 장병희 기자

▶ 4편 'UCLA'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자살률 1위 대한민국 탈출을 위한 혁신의 출발점

#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에서 '마음 건강'도 배우는 학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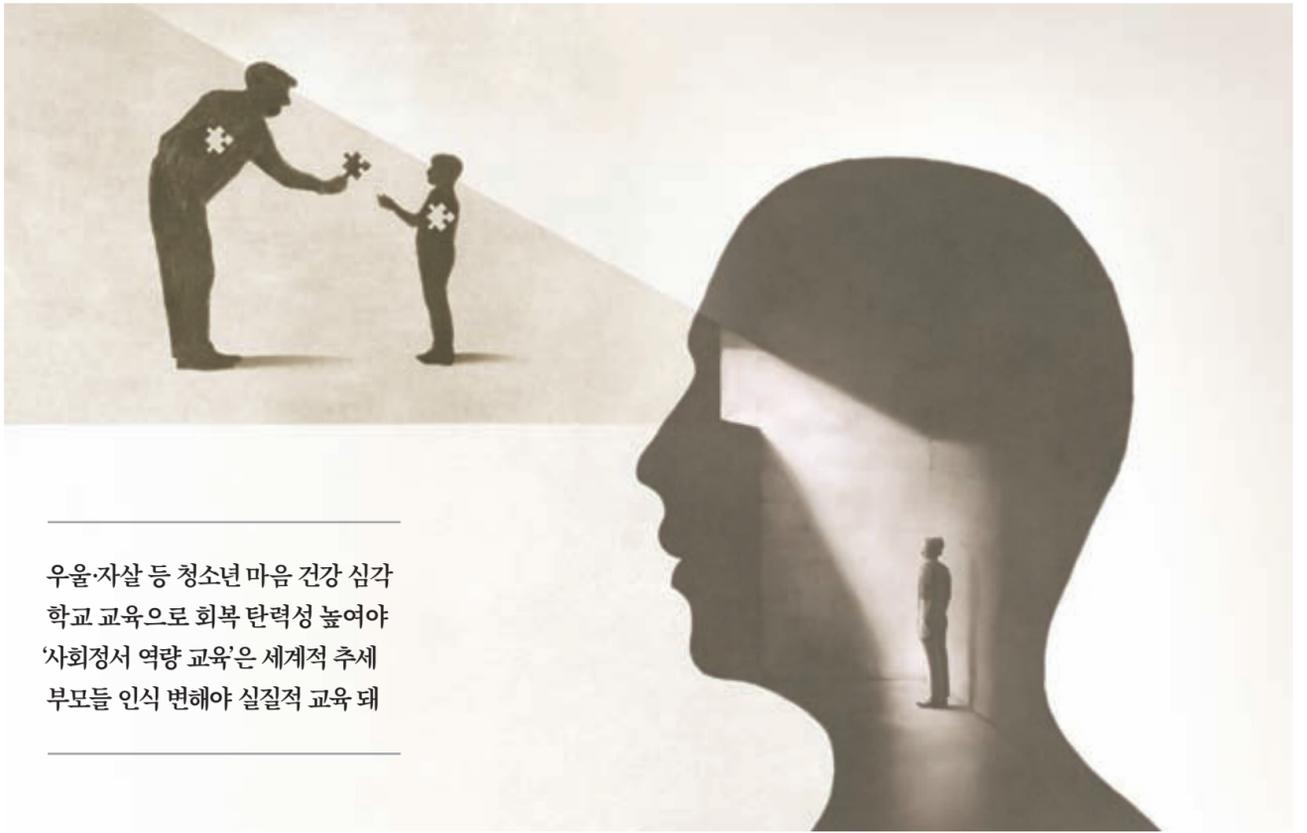
지난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다. 한강 다리의 자살방지 펜스를 높이고 신고·상담 전화를 늘리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처만으로는 1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암담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없다.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심각한 건 2020년대 들면서 유독 청년·청소년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집계 따르면, 10~19세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20대 자살률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14.2명이었는데 2021년엔 22.5명으로 5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자살률은 20.6명에서 23.1명으로 늘었다.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10.8명)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자살·중독·학교폭력·은둔형 외톨이 등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패러다임을 바꾸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학교정신건강학회 등 의료계와 교육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의 사후 대응이나 선별적·개별적 처방을 벗어나 모든 학생이 어릴 때부터 마음건강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고 심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줘야 자존감 있는 학교·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북미·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런 '사회 정서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 목표의 과녁을 옮기고 있다.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응급실 오는 자살 시도 절반이 청년"

젊은 세대의 자살률 증가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한국은 그 증가율과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응급실에 실려 오는 자살 시도 환자의 절반이 청년"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7%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같은 해 교육 관련 NGO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한 조사에서도 ▶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불안·우울을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과도한 학업 경쟁 부담으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처하는 학교의 현실은 어떤가. 여지까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치료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과 부모가 상담·치유기관으로 보내지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편견과 무지로, 또는 자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얘기다. 또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3년 마다(초1·4, 중1, 고1) 하도록 돼 있어 그 사이에 위기 징후가 발생할 경우 발견하지 못하고



우울·자살 등 청소년 마음 건강 심각  
학교 교육으로 회복 탄력성 높여야  
'사회정서 역량 교육'은 세계적 추세  
부모들 인식 변화야 실질적 교육 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확보된 자료도 인권침해 논란을 이유로 바로 폐기되기 때문에, 상급 학년이나 상급학교로 갈 때 전달되지 못해 지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음건강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10% 정도만 서비스를 받는다.

## 한 명의 위기 학생이 학교 전체 흔들어

강윤형 학교정신건강학회장은 "교사들은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인지하고 지도할 실질적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다 학생·학부모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료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로 고통받는다"며 "현재의 시스템에선 자살이나 자해·중독·학교폭력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교사·학교 모두 '멘붕'에 빠지며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 과정에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립의료원 이소희 교수는 "학생의 위험·일탈 문제가 생길 때 그 책임이 교사 한 사람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되거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되니 교사의 효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으로 해결한다. 근원적 처방 없는 폭탄 돌리기식 임시방편 대처다. 그렇다 보니 위험·위기 학생은 점점 보호·치료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

게 된다. 이 교수는 "자살 시도, 자해 같은 고위험군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 겨냥을 역량이 안돼 학교 밖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정서 역량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본, 학교에서 우울·섭식 장애 등 가르쳐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우울증을 느끼거나 불안 등 감정적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일생을 통해 배운 적이 없다. "사춘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며 흘려보낸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치는 '사회 정서 교육' 체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멘탈 헬스 코리아)'라는 청소년 단체가 지난해 발표한 '2023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2년 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 중이다. 우울증, 자살 충동 및 행동, 섭식 장애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하게 한다. 버지니아·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선 학생이 원할 경우 '정신건강 휴식(mental health days)'을 갖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 정부는 2011년 낮은 학업 성취도와

중도탈락, 자살, 폭력과 총기에 의한 사고 등 학교 생활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학업적·사회적·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을 제정했다. 효과성이 검증된 '사회 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사회·정서적 욕구 개발과 학업 성취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든 정신과적 증상의 절반은 14세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듯이 청소년기 마음 교육이 인생 행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2003년부터 정부 주도로 사회 정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도 감정 조절, 동기부여, 공감의 기술 등을 학교에서 가르친다.

1990년 중반 이래 '살아가는 능력' 확보를 교육 목표로 표방한 일본은 '풍성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 교육을 내용에 명시했다.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인 '종합적 학습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활방식이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수업을 받는다. 조현병·우울 장애 등 정신건강, 섭식장애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대처 등을 배울 수 있다.

## 내년부터 초·중·고 사회정서 교육 시행

한국도 공감·소통능력 등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 내에 사회정서성장과를 신설, 사회 정서 역량 강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민혜영 사회정서성장지원 과장은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위기 정서, 스트레스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해석·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응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응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http://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박사님 연봉은 얼마예요?”

강의를 듣는 아이들의 눈이 빛났다. 영화 ‘마션’ 얘기를 하다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한국계 우주인인 조니 김에 관해 말하려던 참이다. 그는 수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다. 또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들어가 100회 넘는 이라크전 작전에 참여했다. 이어 1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르테미스 우주인이 된 그는 내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올라가 과학 임무를 맡는다.

50여 년 전인 1971년 여름, NASA는 아폴로 15호를 쏘았다. 당시에 승무원들은 역사에 남을 진귀한 기록을 세운다. 사령선 밖에서 처음 선의 활동(EVA)을 했으며, 로버라고 부르는 월면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최초 임무였다. 60여 년 뒤 펼쳐질 아르테미스 탐사의 틀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지구로 돌아온 뒤, 집중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달착륙 기념우표에 특별 소인을 찍은 봉투 300여 장을 몰래 반입했다가 귀환했는데 그게 발각됐다. 중개업자에게 속아 규정을 어긴 대가로 NASA는 그들의 우주 비행 자격을 박탈한다. 달 착륙선 조종사는 승무원들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고 고백한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NASA 우주인의 생명 보험 혜택이 취소된 때와 맞물렸다. 그들의 봉급은 예상외로 적다.

### 소득세 감면해 주는 유럽 우주국

NASA 직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연방정부 기관인 NASA는 미국 공무원 일반직 보수표(GS)를 따른다. GS는 1-15등급, 1-10호봉으로 나누며, 성과급과 상여금은 없고 지역 물가와 맞춘 기본급만 준다. NASA 본부와 고다드우주비행센



미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연구원들이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의 임무 완수에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터(GSFC)가 있는 워싱턴 DC-볼티모어 지역의 박사 올해 초임은 약 1억 1000만원, GS-15 7-10등급은 2억 6000만원을 받는다.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예외다. NASA 소속으로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이 운영하는 연방정부 출연 연구개발센터(FRDC)라서다. JPL은 LA 지역 보수표에 약 1.5를 곱해 올해 박사 초임은 약 1억 7000만원, GS-15 6-10등급은 3억 9000만원을 받는다. NASA 과학자와 항공우주 엔지니어 연봉 중간값은 1억 8100만원이다. NASA는 마지막 연봉 60~80%의 연금을, JPL은 5000만원이 넘는 퇴직준비금을 따로 준다. 그들은 공식 정년이 없다.

이번에는 유럽 항공우주 엔지니어의 평균연봉을 검색했다. 유럽우주국(ESA)과 프랑스 국립 우주센터

### 공식 정년 없는 미 항공우주국 민관 구분 없이 경력 따라 보수 기업·출연연봉 차 큰 한국 박사급 두뇌들의 연봉 고민 커

(CNES)는 1억 5000만원, 독일 항공우주센터(DLR)는 1억 6000만원인데, 러시아 로스코스모스(ROSCOSMOS)는 한참 낮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닷컴에는 NASA와 CNES, 로스코스모스 직원의 직장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각각 3.9, 3.5, 2.7이라고 나온다. 연봉의 위력은 크다. ESA는 NASA처럼 매년 연봉을 물가와 연동하며, 주재국 정부는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한국은 생활 물가 상승률이 OECD 3위지

만, 급여는 제자리걸음이다.

NASA와 미국 우주기업의 항공우주 엔지니어 연봉을 비교해봤다. NASA는 1억 4000만원과 2억 1000만원 사이다. 최근 ‘스타 라이너’의 기체 결합으로 ISS 우주인을 태우지 못해 체면을 구긴 보잉은 약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 NASA 화성탐사선의 대기 진입 캡슐인 에어로셀을 전담하는 록히드 마틴도 마찬가지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주계약자인 노스럽 그루먼도 1억 3000만원과 1억 8000만원 범위다. 발이 묶인 ISS 우주인을 태워 귀환하게 된 스페이스X는 2000만~3000만원을 더 얹었다. 민간과 미국 정부 부문의 급여 수준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예외는 있다. 스페이스X의 전자-기계-전산 엔지니어의 최고 연봉은 3억원에서 8억원대까지 간다. 미국과 유럽에서

는 전문가의 분야와 경력·자격이 같다면 기업과 대학·정부 어디에서 일하든 보수를 맞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들었다. 산학연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아 살아 숨쉬며, 이직(移職) 장벽이 낮은 이유다. 한국은?

### 출연연 두뇌들의 이직 고민

H사 전 직원에게 물었다. 박사급 항공우주 엔지니어의 입사 2년 차 연봉은 1억원, 20년 차는 2억에 조금 못 미친다. 같은 그룹 우주 부문 계열사 연봉은 NASA와 보잉, 록히드 마틴급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그 업체의 생산직 복지 수준을 알게 됐다. 성과급 200%와 상여금 800%는 물론 본인, 가족에게 연간 10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며,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5년간 월세 45만원을 보태 준다. 자녀 등록금과 경조사비, 명절 떡값은 정부 출연연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혜택이다. 이직은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오래전 일이다. 보험설계사가 필자 동료 부부를 상담했는데,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두 사람 연봉을 한 사람 것으로 착각했다. 직업상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말이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다. 요즘은 박사학위자가 출연연 정규직이 되면 사십이 넘는다. 학·석·박사와 군 복무, 두세 차례 박사후연구원까지 20년, 이후 제대로 봉급을 받는 기간은 고작 20년이다. 더구나 환급 지나면 정년까지 2년간 연봉이 내리막길로 치달는 ‘임금 피크’에 들어간다. 어찌해서 예순다섯까지 일하는 기회가 와도 손에 쥐는 건 반토막 난 봉급. 준비 안 된 노후는 두렵다. 강의를 마치자 느닷없이 한 초등학생이 따져 묻는다. “박사님 연봉은 얼마예요?”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34개 초·중·고에서 1차 파일럿 학습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효용성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의 1만 1000개 학교에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어떤 커리큘럼을 답을 것인지,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 어떻게 성공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인지도 숙제지만, 무엇보다 입시·성적을 중시하는 경쟁적 풍토에서 학생·학부모·학교가 사회정서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습시간으로 전락, 형식적

인 걸치레로 끝날 수 있다. 서완석 영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식을 가르치고 시험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사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토론·공유하는 참여 유도 수업이 대야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다”며 “지도·교수 방법의 혁신과 함께 학부모들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판단하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교육이란 걸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운형 회장도 “결국 공동체가 힘을 합쳐 건강한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이 문제가 풀린다”며 “학교가 공부뿐 아니라 마음 건강을 학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뿐 아니라 장애와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배우는 곳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회정서 교육**=개인의 생각·감정·행동을 인지,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기술을 갖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교육.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703-256-7671**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대입 들여다보기

# 대학원 진학에서 GPA도 중요하지만 경험·추천서·스테이트먼트도 갖춰야

대학 학부과정에서 GPA가 좋지 않다면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찍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만점인 4.0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학부 GPA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 그런 대학원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에 지원하려면 최소 GPA가 3.0은 돼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이보다 더 낮은 성적을 허락하기도 한다.

대학원이 지원자를 심사할 때 성적만 보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는 추천서와 에세이를 포함해서 다른 요소들을 통해 다른 경쟁자보다 더 돋보일 수 있다. 원서의 다른 요소를 강화하면 GPA가 최상급이 아니어도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다.

대체로 대학원들은 최소 3.0의 GPA를 요구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일부 프로그램은 3.5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니멈 GPA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 힐 대학원은 지원자에게 최소 3.0의 GPA를 권장하지만, 실제로 합격자들의 평균 GPA는 3.54이다.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평균 GPA는 심지어 더 높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의 존 폴슨 엔지니어링 및 응용과학 대학원은 2023년 가을학기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 GPA 평균 점수가 3.80이라고 밝혔다. 권위 있는 MBA 프로그램의 신입생들은 학부 때 평균 GPA가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부 GPA가 낮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먼저, 최소 3.0~3.5 GPA가 필요한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대신 평균 GPA가 낮아도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GPA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조건부 또는 임시 입학 허락을 한다. 임시 입학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대학원 수업에서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경쟁이 덜한 프로그램은 더 낮은 GPA를 보유하고 다른 영역의 성취가 높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원 입학 심사의 목적은 대학원에서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방법으로 내가 대학원 수준

의 학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적 외에 대학원 입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표준시험 점수다.

GRE나 GMAT 등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테스트 옵션별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원하는 데 GPA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경험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에게 리서치나 일한 경험 등을 요구한다.

대학원에 지원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리서치 기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대학원 측에 설명하라.

학부과정에 다니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인턴십이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 연구중심 분야라면 교수에게 문의해서 리서치 조교나 학부 논문 관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추천서다.

나의 아카데미 감점과 직업적 감점을 증명하기에 좋은 구체적인 예를 추천서에 담아야 한다. 추천인을 선택할 때는 학부 때 만난 교수나 직장의 수퍼바이저 중에서 이런 실제 예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다.

넷째, 대학원 진학의 목적을 설명하는 스테이트먼트이다.

왜 내가 해당 프로그램에 적합하고,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훗날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 계획을 분명하게 설명하라.

다섯째, 학부 성적 증명서이다.

대학원의 입학 사정관들은 성적표에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다. 학부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선수 과목에 대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자의 학업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마지막은 인터뷰다.

만약 내가 인터뷰에 강하다면 입학심사 과정에 인터뷰가 포함된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본다.

빈센트 김-어드미션 마스터스 카운슬러

에듀 포스팅

## 사회봉사와 여행 등 상투적 소재 빼고 독창성과 깊이 갖춰야

1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개학과 동시에 대학 에세이 준비는 중요한 시기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학 사정관들은 매년 수백 개의 유사한 에세이를 읽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에세이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대학 에세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특히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대입 준비의 단계에서 에세이 주제 선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학 사정관이 수없이 접하는 다소 진부한 에세이 주제들, 즉 그들이 지루해하는 주제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장 많이 읽히는 에세이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1. 지역 사회봉사 에세이

1980년대에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계층의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입학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입학 사정관이 학생이 대학 준비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숙자 보호 센터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않는다. 그렇다고 봉사활동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sonal Statement에서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자신의 전공과 혹은 열정과 맞는 봉사

사를 시작한다면 이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봉사 될 수 있을 것이며 대입의 '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스포츠 스토리

자신 때문에 팀 스포츠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야기 또는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 부상 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팀이 패배했던 것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는 이야기 등 너무나 진부한 이런 이야기는 심지어 리크루트가 된 학생조차도 눈을 돌릴 정도의 에세이 주제이다. 스포츠를 통해 배운 끈기, 팀워크, 실패를 이겨내는 힘 등은 높은 가치이지만, 이 주제를 선택할 경우 독창적인 접근이나 더 깊은 내면의 성찰이 필요하다.

### 3. 여행 에세이

자기 가족과 인도로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저소득층을 위해 집을 지어준 이야기, 혹은 리서치에 참여하여 다른 나라를 다녀온 이야기 등의 여행 주제는 학생에게는 행운이었겠지만 어떻게 들으면 학생의 부유함과 특권을 드러낼 뿐이다. 여행을 통해 배운 점을 강조하려면 그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나야 한다.

### 4. 조부모에 대한 에세이

대학 입시 에세이에서 조부모를 주제로 한 글은 흔하게 선택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물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본인에게는 영웅일 수 있으며, 그들의 상실을 통해 성장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는 입학 사정관들이 이미 수없이 접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대학 에세이의 목적은 학생 자신의 독특한 성격, 가치관,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삶이나 업적에 집중한 에세이는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덜 부각하게 된다. 입학 사정관들에게 새로운 관점이나 신선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5. 음악 이야기

만약 자신이 선택한 활동이 입시에 강력한 후과 관련이 없다면, 음악에 대한 열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단지 자신을 필사적으로 어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학교에서 바이올린의 제1 주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은 입학 사정관들에게서 학생이 그 학교의 엄청난 지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전달해야만 의미가 있을 뿐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랑일 뿐이니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흔한 주제들보다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대학 에세이 성공의 열쇠이다.

수변·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 ▶ 1번 'UCLA'에서 이어집니다

1. 르벨(Revelle) 칼리지, (Renaissance education): 1964년 설립. 인본주의와 역사, 문학, 철학의 결합을 추구.

2. 존 뮤어(John Muir) 칼리지, (Individual Choice): 1967년 설립. 자기 충족과 개인 선택의 영혼. 자유로운 필수과목 요구.

3. 서굿 마셜(Thurgood Marshall) 칼리지, (Social responsibility): 1970년 설립.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장학-사회적 책임과 진보적 교육에 초점.

4. 얼 워런(Earl Warren) 칼리지, (Balanced education): 1974년 설립. 전공 과목에 집중하고 균형 있는 삶을 추구.

5. 엘리너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칼리지, (International studies): 1988년 설립. 다문화의 중요성과 현대 세계. 외국어 과목을 요구하고 해외 연수를 지원.

6. 식스(Sixth) 칼리지, (Connections between culture, art and technology): 2001년 설립. 예술 문화와 과학 기술안에서의 역사와 철학의 접목.

7. 세븐스(Seventh) 칼리지,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20년 설립. 글로벌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

8. 에이스(Eighth) 칼리지, (Solving issu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nd beyond): 2021년 설립. 커뮤니티 참여해 문제 해결에 초점.

### #UC샌디에이고의 신입생 프로파일

UC샌디에이고 학부생은 2020년 기준으로 아시아인 33%, 백인 19%, 히스패닉 22%, 외국유학생 17%, 흑인 2%, 기타 7%로 구성돼 있다. 2022년 입시 결과로 합격률은 22.7%이고 평균 GPA(weighted)는 4.21이다.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워싱턴사계절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아리엔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은 절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Little River Tnpk  
236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원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매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10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툰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심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매스틱**

**래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항병 공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플러스**

3+1 스페셜 1oz \$45 4oz \$125

**세종 승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명인 용융 자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관절 건강에 최고!!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클루타치온 콜라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니토키나제 / 리포포

**천연 자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자죽염 치약

# 대회 마지막날만 11언더파 마다숨, 생애 최고의 하루

이글 1개에 버디 9개. 프로 4년 차인 마다숨(25)에게 한마디로 '그분이 오신 날'이었다.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듯 쳤다 하면 그날에 공이 올라갔고, 퍼팅은 잇따라 홀 속으로 떨어졌다.

마다숨이 지난달 29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무려 11언더파를 몰아치는 완벽한 경기를 펼친 끝에 함께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챔피언 조에서 함께 8언더파로 공동선두로 출발한 국가대표 동기 윤이나(21·합계 10언더파)를 9타 차로 제치고 통산 2승째를 신고했다. 올 시즌 상금 1억6462만원에 그쳤던 마다숨은 이날 우승 상금으로 2억7000만원을 받았다. 호주 교포 이민지가 함께 7언더파로 태국의 뽀차라주판 콩끄라판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함께 6언더파 10위로 대회를 마쳤다.

72홀 대회에서 9타 차 우승은 2000년대 이후 최다 타수차 우승 타이 기록이다. 2012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김효주(29), 2017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이승현(33)이 각각 9타 차로 정상에 올랐다. 역대 KLPGA 투어 최다 격차 우승은 1982년 고(故) 구옥희가 KLPGA 선수권에서 세운 20타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걸린 총

상금 15억원. 메이저 대회인 한화 클래식(총상금 17억원) 다음으로 상금 규모가 크다. 우승 상금도 2억7000만원으로 역시 한화 클래식의 3억6000만원 다음으로 많다.

2021년 데뷔한 마다숨은 지난해 9월 OK금융그룹 오픈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으로 이번 대회 수입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를 전인 27일 생일을 맞았던 마다숨은 "올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스윙의 기본 메커니즘만 지키자고 다짐했는데 이 점이 주효했다"면서 "정말 큰 생일 선물을 받았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일단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1999년생인 마다숨은 초등학교 시절 처음 클럽을 잡았다. 캐나다에서 유학하다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골프장을 우연히 찾았다가 운동에 흥미를 느꼈다. 결국 본격적으로 골프를 하기 위해 이민을 중도 포기하고 귀국한 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며 엘리트 선수로 성장했다.

청안중과 영동산업과학고를 거친 마다숨은 남들보다 KLPGA 투어 데뷔가 늦었다. 한국체대를 다니면서 프로에 데뷔할 기회를 맞았지만,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아마추어 생활을 이어갔다.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2년 동안 활약한 뒤 2020년 마침내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때 동기가 현재 K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이나와 이예원(21), 방신실(20) 등이다.

이날 윤이나와 함께 공동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마다숨은 초반부터 타수를 빠르게 줄여나갔다. 2번 홀(파4)과 3번 홀(파4)에서 8m와 7m 짜리 버디 퍼트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단독선두로 뛰어올랐다. 이어 4번 홀(파5)에선 샷이급까지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71m 거리에서 마다숨은 58도 웨지를 잡고 세컨드 샷을 했는데 이 공이 그린을 맞고 구르더니 컵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단숨에 2타를 줄였다.

이후 파 행진을 이어가던 마다숨은 10번 홀부터 13번 홀까지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추격자들의 전의를 꺾었다. 그는 또 16번 홀(파3)부터 다시 3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마추어 시절 기록했던 10언더파의 라이프 베스트 기록을 경신했다는 마다숨은 "앞으로 대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원래 목표는 4라운드 대회 우승이었는데 오늘 이룬 만큼 다음 목표를 세워보겠다"면서 "요즘은 선수들이 너무 일찍 은퇴하는 분위기다. 늦게 프로가 된 만큼 통란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고려청자 모양의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마다숨. 이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11언더파를 몰아쳐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뉴스1]

## 등만 봐도 알 수 있어... 너의 꿈, 우리 우정

**일본 애니 '룩백' 진잔한 흥행**

초등학교 교내 소식지에 그린 네 컷 만화가 두 소녀의 평생 우정으로 이어진다. 만화를 향한 열정과 죽음이 엇갈린 성장 애니메이션 '룩백'이 개봉 3주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달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룩백' 누적 관객 수는 20만4844명. 지난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 강세를 잇는 추세다.

원작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

리즈로도 나온 만화 『체인소 맨』(누계 발행 2700만부)으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 그가 우연히 읽은 책에서 '오직 창조 안에서만 죽음과 화해할 수 있다'는 대사에 감명받아 작란한 143쪽 분량 단편으로, 2021년 웹만화 플랫폼 소년점프+에 공개 직후 30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다.

초등생 후지노(카와이 유미, 이하 목소리는 교내 소식지에 나란히 실리게 된 교모토(요시다 미즈키)의 빼어난 그림 솜씨에 경악해 만화가 꿈을 접으려 하지만, 선생님의 심부름을 갔다

가 만난 교모토가 자신의 만화의 열렬한 팬이란 걸 알고 둘이 힘을 합쳐 만화 공모전에 도전한다. 제목 '룩백(Look Back)'은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Back)으로 책상에 붙어 앉아 만화 그리기에 열중한 주인공들의 등(Back)을 비춘 장면이 많은 데서 나왔다. 상영시간(58분)은 짧지만 갑작스런 비극과 이를 위로하는 뜻밖의 상상까지 매 장면이 밀도 있게 짜여 있다.

"단편의 악마가 만들어낸 걸작" "자신보다 능력자를 마주했을 때의 절망



애니메이션 '룩백'은 좋아하는 일(만화 그리기)에 열중한 주인공의 등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달 5일 개봉하고 3주만에 관객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 메가박스중앙]

과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성장을 잘 묘사했다" 등 예매율 관람평도 9점(10점 만점)에 달한다. 배우 이재훈은 "보고 좋아서 또 봤다. 만화책도 봐야겠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추천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 등 일본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참여해온 오시야마 키요타카 감독이 극장판 연출·각본·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다. 올해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상하이 국제영화제 애니메이션 부문 등에 초청됐다. 일본에선 누적 관객 97만명, 흥행수입 16억엔(약 148억원)을 기록했다.

나원정 기자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제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바보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 메가씨킹



올해 한 당신의  
가장 바보같은 짓은?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한달광고유료계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 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 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관리 및 인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빌 샵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 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 싱글/타운방렌트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이층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스리매입/현장매입결정 -결정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어시스턴스리빙에서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숙식가능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세일창고에서 오전:고객오더접수오후:노던버지니아 지역및 메트로지역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License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월, 20월, 22월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중앙일보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 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 좋은 인성과 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 - 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리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y.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강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No.1 플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 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 기타/구인/청소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 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싱글홈 지하 렌트 욕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  
는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 콘도 렌트

▶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금매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 한달유료제, 내용보내실곳: kd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아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 방렌트

센터빌 \$800/유틸리티 포함  
던킨도넛 근처, stone road 옆에 위치함.  
703 762 6759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롯데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홀 안방+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뜰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둘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욕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홀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사위/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사위/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 부동산 매매

##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 월 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리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 부동산/사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키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팔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  
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수스페인팅(In,Out),텍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견학,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 트라크린, 가동용/산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산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페임,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튼튼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튼튼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삼정,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소독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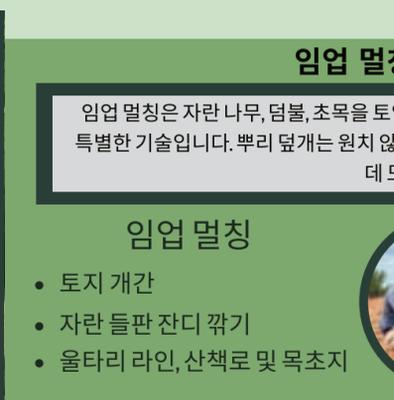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Gary: You didn't get invited to Dave's Super Bowl party, did you?  
게리: 데이브가 슈퍼 보울 파티 여는데 초대 못받았지, 그렇지?  
Alex: No. He never invites me to his parties.  
알렉스: 못받았어. 데이브는 한번도 날 부른 적이 없어.  
Gary: Why don't you guys get along?  
게리: 너희 두 사람 잘 지내지 그래?  
Alex: He's hated me since we were in high school.

알렉스: 데이브는 고등학교 때부터 날 미워해.  
Gary: That's a long time ago. What happened?  
게리: 그게 언제 적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Alex: We got into a fist fight and I punched him out.  
알렉스: 주먹다짐을 했는데 내가 데이브를 때려눕혔지.  
Gary: And he still hasn't gotten over it?  
게리: 데이브는 아직도 그걸 못잊는 거야?  
Alex: He sure can hold a grudge, can't he?  
알렉스: 속으로 꿀꿀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Gary: Yes he can. Where are you going to watch the Super Bowl?  
게리: 응 그럴 수 있겠네. 슈퍼 보울은 어디서 볼 거야?  
Alex: I'm going to a sports bar with three friends.  
알렉스: 친구 셋하고 스포츠 바로 갈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get along (with someone): (누구와) 잘 지내다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in her class." (그녀

는 같은 반 친구 모두와 잘 지냅니다.)  
▶ get over (something): (무엇을) 떨쳐내다 있다.  
"She can't get over failing her writing class." (그녀는 작문 과목에서 낙제한 걸 잊지 못합니다.)  
▶ hold a grudge: 꿀꿀하다.  
"Tim holds a grudge against her but I don't know why." (팀은 그 여자에게 꿀꿀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punch (someone) out: 때려 눕히다  
Alex and Gary are having lunch ...  
(알렉스와 게리가 점심을 먹고 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음. 계용목의 소설 <백치 아다다>는 ~의 세대를 비판한 작품이다 (4)바람을 막기 위하여 문짝 주변을 돌아가며 바른 종이 (6)먼저 제안하였던 벼슬아치. ~이 명관이다 (7)선산의 아래쪽. 선산하 (9)내장의 여러 기관 (11)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은 나그네 길/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최희준) (12)죄인이나 혐의자를 조사함. 문초 (14)선물을 묶는 끈 (15)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 (17)약효가 있다는 샘물이 나는 곳 (19)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20)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명물인 작은 배. 이불과 고물이 위로 굽었다 (21)넓고 평평한 큰 돌 (22)어떤 일에 마음을 붙여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냄 (24)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25)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 (27)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29)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춤 (30)피부색이 황갈색인 한 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동양인 (31)술자리에 뒤늦게 온 사람에게 권하는 석잔의 술. □래□□

세로열쇠

(1)입에서 젖내가 남. 말이나 행동이 유지함. □□유□ (2)임금이 쓰던 관 (3)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 (4)어떤 스승의 아래에서 배우는 제자 (5)손도장 (8)원본을 활영하여 복제한 인쇄물 (10)비가 오기를 비는 제사 (13)자살하고 동글동글한 돌 (14)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 (15)자기에게 딸린 것을 팔보거나 가꿈. 물건을 잘 거두어 보관하거나 지킴. 세상에 제 자식 ~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16)부대 정문에 설치하여 장병의 출입을 감시하는 곳 (18)임금에게 올리는 밥 (19)무덤 앞에 제물을 차리기 위해 돌로 만들어 놓은 상 (20)임금이 입던 정복. 누런빛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21)밀가루 반죽 등을 얇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조각 (23)한 알의 곡식도 심어서 가꾸면 만 알이 됨. 작은 것도 쌓이면 많아짐. □립□□ (24)사람을 부르는 신호로 올리는 종 (26)오래 굶주려서 살갓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28)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함 (29)승려의 웃옷.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다

스도쿠

	9	6			5	1	8	3
				8	7		6	
	3							
6				5	9		3	
8				2			7	6
5				6				
2	4			7				8
9				5				6
3	6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6	2	8	4	5	7	9	3
9	7	4	2	1	3	5	8	6
8	5	3	9	6	7	1	4	2
4	1	6	7	8	9	3	2	5
5	9	7	4	3	2	6	1	8
2	3	8	6	5	1	4	7	9
7	2	5	1	9	6	8	3	4
6	4	9	3	7	8	2	5	1
3	8	1	5	2	4	9	6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알짜 세택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렌트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김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charooni cadet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살삼세일**  
**9월 햇살삼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